

# 너의 결혼식

각본/감독 이석근  
production filmK

## 1. 타이틀 백

또각또각- 걸어가는 한 여자의 뒷모습. 전방에 보이는 우체통  
우체통 앞에 멈춰선 여자, 손에 쥔 자두색 봉투를 우체통에 넣을까 말까 망설인다.  
긴 한숨, 머뭇거리는 여자의 손에서

CUT TO

우체통 안. 수많은 편지들 위로 툭 떨어지는 자두색 봉투의 봉인에 찍힌 'W'  
또각또각- 멀어지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 들으며

CUT TO

부아앙~ OO중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오토바이 뒤 우편물 자루 속 자두색 봉투

CUT TO

미식축구장. 밤하늘을 날아오는 미식축구 공. 그 공을 향해 날아올라 꼭 잡는 손.  
우연, 착지와 동시에 공을 쥐고 달리기 시작하면  
거구의 상대팀 선수들, 우연을 향해 거친 태클들을 날리지만  
손으로 밀쳐내고, 뛰어넘고, 박치기로 찍어버리고 초인처럼 계속 전진하는 우연의 시선에 -  
환호하는 팔등신 치어리더  
허억허억- 어금니를 악물고 달려가는 우연. 터치라인까지는 불과 20야드.  
이때 우연을 향해 양쪽에서 달려오는 두 거대한 덩치의 수비수. 피할 곳이 없다.  
그대로 전진하는 우연. 10야드. 5야드.  
우연을 향해 태클을 날리는 덩치들. 점프하는 우연. 쿵!  
덩치들을 들이받고 튀어 오르는 우연, 공중에서 360도를 던하고 착지.  
삐익! 휘슬을 부르는 심판. 터치다운!  
환호하는 선수들과 관중들 달려와 우연을 에워싸는데  
홍해가 갈라지듯 비켜서는 선수들 사이로 등장하는 치어리더, 우연에게 다가오면

(우연)

내 목표는 하나뿐이었다. 그녀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물하는 것!

헬멧을 벗어던지는 우연, 치어리더의 허리를 휘감으며 키스를 하는데. 그 위로 - “까악~~”

## 2. OO중학교 운동장 / 낮

“까악~” 감동 먹은 여학생들, “바람둥이!” 씹어대는 남학생들도 있고

남중생1

또 구라 깐다 구라 까.

우연  
자, 얘기 하나 해줬으니까 이제 수업하자!

“아~~ 하나 더 해주세요!” 애걸복걸하는 중딩들  
하지만 아랑곳없이 배드민턴 셔틀콕들을 쳐주며 수업을 시작하는 우연의 모습에서

### 3. 동 교무실 / 낮

교무실로 들어서는 우연,  
자신의 자리에 앉으려다 책상에 놓인 우편물들을 집어 무심코 훑어보는데  
카드고지서, 동문회, 그리고 자두색 봉투  
순간 굳어버리는 우연의 시선에 - ‘Wedding Invitation’ ‘From 환승희’ ‘To 황우연 선생님’  
우연의 씩씩한 미소를 보며 떠오르는 타이틀

나의 결혼식

### 4. 신사복 매장 / 낮

거울에 비친 우연, 새 옷을 입고 이런저런 포즈를 취해보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다.  
옆에 쌓여있는 이미 입어본 옷들을 정리중인 점원1,2의 한숨. 점장, 애써 표정관리 하며

점장  
고객님, 정확히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벌써 한 시간 반쯤데.

우연  
아.. 그게 그러니까.. (붓물 터지듯) ‘재가 잘 보이고 싶어서 진짜로  
신경 써서 입었구나!’ 이런 느낌은 안주면서 또 ‘뭐야 너무 편하게  
입고 온 거 아냐?’ 요런 느낌은 또 피해주면서도 아주 세련된 느낌?

점장  
저.. 혹시 전 여친 결혼식 가세요?

우연  
뭐.. 비슷하네요.

점장

진작 말씀하시지.

(다른 옷을 뒤지기 시작하며)

그런 상황이면 단품 깔맞춤 보단 콤비죠. 포멀한 듯 하면서 캐주얼한? 거기다가 셔츠색깔, 넥타이, 구두에 포인트를 살짝 ...

이어지는 점장의 썰을 흘려듣는 우연의 시선에 - 마네킹이 입고 있는 신랑예복

우연(Na)

*축의금 3,5,10의 법칙! 안 천하면 3. 보통사이면 5. 천하면 10.  
호텔 결혼식 최소 5만. 난..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

털썩 의자에 앉는 우연, 시선을 돌리면

진열장 아래쪽에 순서 없이 꽂혀있는 옛 G.Q. 잡지들.

2015 5월, 2013 2월, 2009 1월, 2001 11월 등등. 사이 우연의 시선에 들어오는 -  
2005년 6월. 멍한 우연의 표정. 그 위로 들리는 - 사내들의 싸움박질 소리 퍽- 퍽-

우연(Na)

*우리나라에 환씨가 있다는 것을 그 날 처음 알았다.*

2005년 6월호 잡지를 꺼내들면서

## 5. 과거. OO고등학교 옥상 / 낮

화창한 하늘, 멀리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쪽빛 바다, 천천히 카메라 이동하면

학교 옥상에서 싸우고 있는 남학생 둘. 몇 명의 구경꾼들도 보이고.

오고가는 거친 주먹과 발길질. 펀치를 날리는 고등학생 우연과 완력이 만만치 않은 남자 고딩1  
슬쩍 페이크를 걸고 파고들며 스트레이트를 끝기 시작하는 우연의 모습에서

## 6. 과거. 동 교무실 / 낮

철썩철썩. 엉덩이를 때리는 지시봉. 엎드려 뺀 우연을 타작중인 담임

담임

가만있는 애들을 왜 자꾸 시비 걸어서 패 재껴? 지난주엔 판호, 저  
저번엔 6반 애. 이유는 또 묵비권이?

우연

네.

담임

니가 맞는 이유는 알지?

철썩철썩. 이어지는 매질에 움찔대는 우연의 시선이 순간 한 곳을 응시하는데.  
올려다보는 우연의 시선에 - 직원을 따라 걸어오는 수줍은 표정의 어여쁜 승희  
사이. 울리는 핸드폰을 받아드는 담임

담임

네, 여보. 그게 어제네요..  
(통화를 하며 걸어간다)

우연, 옆을 지나치는 승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직원

고선생님, 3반 전학생 왔어요!

승희가 잘 보이지 않는 우연, 슬금슬금 네발로 뒤로 이동을 시작하고

3반 담임

(기록부를 보며)  
환승희. 환씨는 처음보네. 어휴, 전주에서 강릉까지! 공부 잘하네.  
괜찮겠어? 고3은 웬만하면 전학 잘 안하는데!

승희

네.

힘겹게 올려다보는 우연의 시선에 - 역광을 받으며 앉은 승희의 옆모습이 참 예쁘다!

3반 담임

그래, 잠깐만 앉아있어.  
(서류를 들고 일어선다)

우연

(승희쪽으로 더 후진을 해서)  
나도.. 전학 왔었어. 작년 일 학기에.

승희

...?

우연

경험담, 체험기 듣고 싶으면 얘기해. 나 1반 황우연.

황당한 승희, 고개를 숙여 거꾸로 우연을 보면 - 땀을 빼질빼질 흘리며 미소 짓는 우연

우연

첫인상이 위아래가 좀 없지만.. 나쁜 놈은 아니야.

승희

1반 황우연. 바지 터졌다!

응? 우연, 엉덩이를 더듬어 만져보면 쪽 찢어진 사타구니로 보이는 팬티  
쿵-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우연, 우이씨!

## 7. 과거. 동 복도 - 1반 - 3반 / 낮

창문 위로 슬며시 올라오는 폴더폰. 찰칵. 찰칵. 폰카 속의 승희.  
사진을 전송하는 남자 고딩2의 분주한 손. 곧 화면 여백에 뜨는 메시지창 속의 승희 사진들  
'3반 전학에 졸라 예뻐' '환씨라며? 내가 찜.'  
곧 두 개, 네 개, 늘어나는 메시지창들

CUT TO

교실과 복도에서 폰을 들여다보는 남학생들, 혼자서 혹은 끼리끼리 메시지를 주고 받는  
사이  
우연, 단짝 근남과 교실로 들어가려다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친다.  
보면, 험상궂은 인상의 택기와 톨마니들인데

택기

서울내기 다마네기! 요새 애들 좀 치고 댕긴담서?

우연

너만 하겠냐?

택기

오, 말대꾸. 많이 컸다!

눈싸움을 하는 택기와 우연. 한 남학생이 보는 핸드폰을 뺏어 승희 관련 메시지를 보는 톨마니1,  
택기에게 건네면. 이를 보고 피식 웃는 택기

택기

2부는 다음에. 형이 쏘 바빠서.

택기, 우연 뒤통수를 툭툭 치고 걸어가면. 발끈하는 우연을 말리는 근남,

우연을 교실로 끌고 들어가는데

CUT TO

자리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승희를 향한 여학생들의 불편한 시선들  
복도 창문너머의 택기, 승희가 아주 마음에 든다.

택기

승희야!  
(돌아보는 승희에게 손을 흔들며 희죽)  
잘 지내보자고!

승희

(손가락 욕을 날리고 다시 문제를 푸는데)

택기

오, 도도하기까지!

희죽 웃는 택기, 톨마니들에게 뭐라 속삭이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드는 톨마니들, 문자를 입력하는데

CUT TO

1반. 연이어 들려오는 문자음들.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학생들.  
‘로마인 이야기’를 읽던 우연도 핸드폰을 열어서 보면 -  
‘3반 전 학생 택기꺼니까 접근금지다.’ ‘뒤질려면 건들던가!’  
웅성대는 남학생들. 근남은 벽을 보며 서전트 점프 연습 삼매경이고  
핸드폰을 덮는 우연의 묘한 표정에서

## 8. 과거. 거리 / 밤

릴낙싯대를 들고 걸어가는 우연, 밤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길인 듯  
휘파람을 부는 우연의 시선에 문득 - 공원 귀퉁이에 앉아 음악을 듣는 승희.  
우연, 슬며시 다가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승희를 바라보면  
옆에 놓인 낡은 CDP. 귀에 꼽은 이어폰. 장단을 맞추는 손가락과 발동작  
분명 신나는 노래를 듣는지 콧노래를 흥얼대지만 눈은 울고 있는데  
의아한 우연의 표정에서

## 9. 과거. 고등학교 뒷마당 - 계단 / 낮

지친 표정으로 걸어가는 승희. 한편 승희의 등을 보며 피식거리는 학생들

사이

맞은편에서 오는 우연, 승희를 지나치다가 힐끗 돌아보면 - 승희 등에 붙어있는 종이 셋. '택기 LOVER' '택기꺼' 등. 승희 뒤를 따라가는 우연, 승희가 모르게 종이들을 떼어주려는데  
아슬아슬 한 장을 떼고, 두 장을 떼고  
세 번째를 떼어내는 순간 인기척을 느끼는 승희

승희

뭐냐?

우연

아니..

(종이들을 떼서 건넌다)

승희

(종이들을 보고 한숨)

아 씨, 거지같은 것들 졸라 귀찮게구네 진짜.

우연

(피식) 너.. 적응 다했구나!

승희

야! 전학생끼리 빠구리나 치러 갈래?

쿠궁! 놀라 굳어버리는 우연의 얼굴에서 화면정지

우연(Na)

*빠구리! 덩석먹다를 뜻하는 일본어 '빠꾸루'에서 파생된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혼란스러웠다. 애 도대체 뭐지? 이런 식으로 내 동정을 잃는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우연

(침 꿀꺽) 그럴까?

## 10. 과거. 동 학교 담장 / 낮

우연이 깍지를 끼며 허리를 낮추면, 깍지를 밟고 서는 승희.

쭈 승희를 들어 올려 담장 위에 앉혀주는 우연, 곧 자신도 담장 위로 올라타는데  
담장 위에 앉은 두 사람

승희



나 떡볶이 땡겨. 맛있는 데 알아?

우연

그럼!  
(홀쩍 뛰어내린다)

## 11. 과거. 떡볶이 집 / 낮

떡볶이를 찍어먹는 승희. 어묵 국물도 마셔가며

승희

맛있다 이 집!

우연

이사 오기 전엔 전주에서 쪽 살았고?

승희

대전.

우연

대전에서 태어났냐?

승희

아 이 씨! 호구조사 나왔냐?

아저씨 튀김도 좀 주세요. 순대 간하고요. 야, 돈은 니가 내라!

## 12. 과거. 밤거리 / 밤

혼자 앉은 승희, 기분이 풀린 듯 후련해 보인다. 그 뒤로 보이는 -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으며 편의점에서 나오는 우연, 다가오면

승희

뭐 샀냐?

우연

어, 그거.

승희

그거? 뭐, 담배?

우연

순진한 척은! 넌 빠구리 언제 처음 했냐?

승희

중 3.

우연

완전 날라리였구만!

승희

그게 뭐 날라리냐?

우연

중3에 아다 께으면 날라리지 엄친딸이냐?

승희

아다? 그게 뭔데?

당황하는 우연. 확 인상이 구겨지는 승희,  
주머니 속에 뭔가를 꼭 쥔 우연의 손을 핵 꼬집어내서 보면 - 콘돔 ‘운수대통’  
짜려보는 승희의 얼굴에서 정지화면

우연(Na)

*가는 파처럼 생긴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을 경상도에서는 정구  
지, 충청도는 술, 경기도는 부추라고 한다. 수업을 빼먹고 놀러가는  
행위를 전국민이 땡땡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전라도만 빠구리  
라고 부르는지 아직도 미스테리다!*

승희

이 또라이 새끼가!!

(우연 따귀 짹-)

우연

(뽕으락푸르락, 버럭)

씨발, 왜 좋은 한국말 놔두고 일본말을 써? 땡땡이! 좋잖아!!

순간 멈칫 하는 승희, 푸웃- 웃음이 터지더니 깔깔깔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한다.  
목젖이 보일 듯, 코를 먹는 듯한 독특한 소리도 쿵 쿵 내면서

승희

줄라 웃겨.. 그래서 오락실은 왜 가냐고.. 쿵.. 쿵..

우연

여자가 웃음소리 하고는...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승희를 뒤로 하고 걸어가는 우연

### 13. 과거. 고등학교 복도 / 낮

농구공을 튕기며 걸어오는 우연과 근남.

이때 맞은편에서 오는 승희, 우연을 보자 피식 웃는데

우연, 머쓱한 표정으로 지나가는데 옆을 지나가는 승희가 한마디를 툭 뱉는다.

승희

오늘은 빠구리 안 해?

눈이 휘둥그레지는 근남, 승희와 우연을 번갈아보며

“뭐? 빠..빠구...”

우연, 근남의 입을 틀어막으며 교실로 끌고 들어간다.

히죽 웃으며 3반으로 들어서던 승희가 멈칫. 보면 -

승희 자리에 커다란 곰 인형을 앉혀놓고 포즈를 잡고 있는 택기

짜증난 표정의 승희, 책 뒤돌아 걸어가는데

### 14. 과거. 동 뒷마당 / 낮

걸어가는 승희, 코너를 돌아서다가 문득 보게 되는

싸우고 있는 두 남학생. 그 중 하나는 우연이다.

발차기로 상대를 몰아치는 우연이 문득 승희를 보고 멈칫하면. 우연의 턱을 때리는 상대의 주먹

피침을 뱉는 우연, 다시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이는데. 혀를 차며 돌아서는 승희.

CUT TO

담장 앞. 쌓아놓은 돌들을 밟고 선 승희, 담장 끝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애를 쓴다.

겨우겨우 담장을 잡고 올라가려는 순간 쪽 미끄러지는 다리를 받쳐주는 손.

보면, 히죽 웃는 우연이다.

### 15. 과거. 떡볶이 집 / 낮

떡볶이를 찍어 먹는 승희,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푹 담가 입에 넣는데

야무지게 열심히 먹는 승희를 바라보는 우연, 히죽

우연

떡볶이 진짜 좋아하네!

승희

싸움질 진짜 좋아하데! 씹질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으면 차라리 곳을 하던가?

우연

(피식)

택기 애들이 너 찾던데.

승희

근데?

우연

나랑.. 사건다고 그러면 더 이상 너 귀찮게 못할걸?

(우연을 향해 눈을 치켜뜨는 승희)

그냥 그런 척이라도... 아니면 계속 들들 볶을 거야. 그 새끼 완전 양아치거든.

승희

남 말은! 개랑 너랑 뭐가 틀린데?

우연

난.. 이유가 있어.

이때 “승희야!!” 멀리서 손을 흔들며 등장하는 곰 인형을 든 택기와 딸마니들

승희

핑계겠지.

우연

(가까워지는 택기 일당을 의식하며, 아주 빠른 말로)

나 전학 왔을 때 164 센치였어. 서울내기 다마네기 맨날 놀림당하고 맞았었는데. 도장 다니며 하루 우유 세통씩 마셨더니 일 년 만에 이렇게 커서 그 새끼들 복수 하는 거야. 한 놈씩.

승희

참 너도 세상 힘들게 산다!

근데, 아무리 척이라도 너 같은 일진이랑 엮이기 보단 좀 귀찮더라도 그냥 참으려고.

우연

내가.. 다신 싸움 안 하겠다면?

승희, 우연을 응시한다. 진지한 우연의 표정. 그리고 가까워지는 택기를 힐끗 보는데

택기

우리 승희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한참..

(그제야 우연을 보고)

서울내기 다마네기! 어, 둘이 감상중이네. 너 돌았냐?

승희

(우연의 앞을 막아서며, 히죽)

우리 사귀어.

(표정이 굳어버리는 택기. 우연도 놀라지만 표정관리 하는데)

둘이 오בות하게 좀 먹고 싶은데! 좀 비켜줄래?

택기

(우연을 노려보며)

앞으로 학교생활 참 다이내믹 하겠다? 가자!

곰 인형을 던져버리고 돌아서는 택기 일당. 승희, 태연하게 떡볶이를 쿡 찍으며

승희

약속 지켜라!

오물오물 떡볶이를 먹는 승희. 뭔가 아직 적응이 안 되는 우연의 모습 보면서

## 16. 과거. 우연 방 / 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고 있는 우연과 근남

근남

크아, 사랑을 위해서 복수프로젝트를 접은 거네!

우연

치는 것도 슬슬 지겹더라고. 공허한 주먹질?

근남

새끼 다 컸네. 흰 우유만 쪽쪽 빨던 게 조만간 우유주머니 쪽쪽?

우연

미친 새끼..

(근남의 승리로 게임이 끝나고. 좋아하는 근남 얼굴의 상처를 보고)  
근데 너 맞았냐?

근남

말도 마. 드라마 보다가 아빠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

우연

뭔 드라마?

>

인서트. 근남 집 거실. TV 화면 - “죄인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부모님과 과일을 먹다 낄낄대는 근남 “죄 짓고 오랄도 받고 좋네!”  
“이 새끼가!!” 근남이를 후려치는 근남부.

>

근남

씨바.. 그렇게 들린 걸 어쩌라고.. (투덜투덜)

## 17. 과거. 학교 식당 / 낮

점심을 먹는 학생들로 북적이는 내부.

식판을 들고 걸어오는 우연, 옆에 와 앉으라고 손짓하는 근남을 지나쳐

혼자 앉아 식사중인 승희 앞에 앉아 태연하게 식사를 시작하는데

마주앉은 두 사람을 보며 뭔가를 소곤대는 학생들. 한쪽에 모여 앉은 택기 일당도 보이고

승희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연

뭐? 빈자리 앉아서 밥 먹는 거?

이때 퍽- 퍽- 어디선가 날아와 우연의 등에서 터지는 우유팩들

싸해지는 분위기. 승희도 놀라고.

쓰윽 일어서서 돌아보는 우연의 눈에 - 태연하게 식사중인 택기 일당

톡톡 젖은 옷을 털고 앉은 우연, 다시 밥을 먹으며

우연

완전 든든하지? 나 없었으면 이거 니가 맞았어.

뭐해 안 먹고? 밥 식겠다.

우걱우걱 밥을 먹는 우연. 연하게 배어나오는 승희의 미소에서

## 18. 과거. 고등학교 담장 / 낮

학교 담장에 툭툭 올라오는 손들  
땡땡이를 치는 우연과 승희. 이젠 호흡도 척척 맞는다.

## 19. 과거. 떡볶이 집 골목 / 낮

소나기가 내리는 거리. 박스상자를 우산으로 쓰고 뛰어와 처마 아래로 들어오는 우연 승희의  
황당한 시선에 - 닫힌 문에 붙은 '금일 휴일. 결혼 20주년 기념일.'

CUT TO

비날 처마 아래 두 사람. 어느새 비는 그쳤고.

처마에서 똑똑 떨어지는 빗물을 손바닥에 받는 승희를 보는 우연, 막대시탕을 물고서

우연

대학가면 전공은 뭐? 나중에 뭐하고 싶은데?

승희

모르겠어 아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넌 왜 공부 안 하나? 대학 안 가? 집에 돈 많냐?

우연

공부 재미없잖아. 책만 해도 교과서보다 재미있는 게 썩고 썩는데.

승희

공부 재미로 하니? 인생 낭비 그만하고 공부 해!

우연

팔십 구십 사는 인생에 이삼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낭비냐?

승희

야 이 등신아! 니가 뉘버린 그 이삼년 때문에 팔구십까지 궁상떨고  
사는 거야. 일단 공부는 쳐 해가면서 놀라고!

우연

(묘한 미소)

이게 니 스킬이구나! 일부러 독하게 말하고 터프한 척 하는 거.

(살짝 당황하는 승희)

새 학교에 빨리 적응하는 전학고수의 노하우, 맞지?

승희

뭐.. 뭐래는 거야?

(누굴 보더니) 엇, 학주다! 뛰어!

후다닥- 도망가는 우연과 승희. “야! 니들 거 딱 서라!” 쫓아오는 우비차림의 학주

CUT TO

달려가는 우연, 뒤를 돌아보면 점점 뒤처지는 승희

뒤돌아가는 우연, 승희의 손을 잡고 다른 골목으로 꺾어 들어간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학주도 헉헉대며 그 뒤를 쫓는데

## 20. 과거. 작은 연탄창고 / 낮

연탄으로 가득한 창고 안. 문 쪽 좁은 공간에 바싹 붙어있는 두 사람.

헉헉- 거친 숨을 겨우겨우 참아가며.

잠시 후 문틈으로 보이는 - 창고 앞을 서성대는 학주

서로를 보며 숨죽여 히죽 웃는 두 사람

그러다가 문득 우연의 시선에 들어오는

- 승희의 젖은 상의로 드러나는 속살. 브래지어 끈

순간 승희의 엉덩이 쪽에 닿아있는 우연의 아랫도리에 신호가 온다. 당황스런 우연, 급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 투두둑 쓰러지는 연탄들. 연탄들을 뒤통수와 양손으로 받치느라 안간힘을 쓰는 우연이 땀을 흘리는 거친 숨결이 승희의 뒷목을 간질이면, 승희도 은근히 긴장이 되는듯한데.

CUT TO

창고를 나오는 두 사람,

보면 옷에 검정이 묻어 엉망이다. 우연의 등은 거의 까만색이고.

승희

아이 씨, 이 꼴로 어떻게 가냐?

우연

우리 집 갈래? 요 앞인데.

승희

니 집엔 왜?

우연



세탁기 돌리고 금방 말려줄게. 아빠 엄마 늦게 들어와.

승희

...

## 21. 과거. 우연 방 / 밤

위잉위잉- 돌아가는 세탁기 속 승희와 우연의 교복

CUT TO

우연 방. 우연의 옷으로 갈아입은 승희, 낯선 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문학전집, 판타지 SF 소설들, 잡학도서들 등으로 가득한 책장

승희

완전 잡식이구나.

우연

(옷걸이에 건 승희 교복과 간식거리를 들고 들어오며)

책 빌려가고 싶은 거 있으면 빌려 가.

(쟁반을 내려놓고)

(선풍기에 교복 옷걸이를 걸고 선풍기 틀면서)

참, 너 생일은 언제냐?

승희

5월 8일 어버이날. 웃기지? 우린 안 주고 안 받아.

우연

헐, 난 설날! 생일선물은 세뱃돈으로 통치고. 미역국엔 떡 넣어서 먹

고. 아니.. 떡국에 미역 넣는 건가? 영화 하나 볼래?

승희

그래.

DVD를 뒤적이는 우연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보는 승희, 'SF 단편집'를 꺼내 표지를 넘기면

볼펜으로 쓴 - '2003.4.28. 터미널 책방. 엄마랑 양구 고모집에 가는 길에'

승희, 다른 책을 꺼내 겉장 넘기면 -

'2002.7.8. 경남서적. 이상봉 치과 다녀오는 길에'

승희

책마다 다 써놨네. 책방, 날짜, 그때 뭐했는지!

우연

자기 이름만 쓰는 것보다 낫잖아. 책 샀던 날 기억도 되고.

승희

하긴.

우연

어떤 장르 좋아해? 스릴러? 코메디?

승희

딱히 그런 거 없어. 하나 골라 줘봐.

책장을 훑어보는 승희의 시선에 - '외계인 대백과'

꺼내 펼쳐보면, 안에 든 플레이보이 잡지들. 피식 웃는 승희

우연

스파이더맨 볼래?

승희

(잡지 넘겨보며 피식거리며)

좀 야한 거 없냐? 남자들은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다며?

우연

(당황) 야한거?

승희

여자들 가슴, 엉덩이도 보여주는 거. 넌 그런 거 싫어해?

우연

그런 건 진작 뺐지.

(승희가 든 잡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뺏으려하며)

근남이라고 찌파 하나 있는데, 놓고 가더니 찾아갈 생각을 안 한다!

승희

(안 뺏기려하며)

남자는 진짜 이런 거 보면 막 흥분되고 그래? 자위도 하고?

우연

뭐래냐?

(잡지 확 채어서 돌아선다)

승희

궁금해서 그러는데. 남자들 보통 언제부터 자위 시작해?

우연

(허걱. 저런 질문을!) ...?!

승희

조선시대냐? 언제부터 시작 하냐고?

우연

뭐.. 그게.. 한.. 열한시 쯤?

승희

(애, 바본가?) ...?

우연

(당황 & 쇼크) 아.. 몇 살?

푸하하 박장대소하는 승희. 차라리 죽었으면 싶은 우연

승희

넌.. 진짜.. 너무 웃겨서 좋아. ..콩. ...콩.

우연

어휴~ 웃음소리 하고는 진짜!

## 22. 과거. 승희 집으로 가는 길 / 밤

골목길을 달려가는 자전거 위의 우연과 뒷자리의 승희. 멀리 보이는 등대.

CUT TO

다른 골목길을 달려가는 자전거 위의 두 사람

CUT TO

우연의 허리를 잡은 승희의 손. 아직 부끄러움이 가시지 않은 듯한 머쓱한 우연.  
웃음을 참고 있는 승희, 장난스런 표정으로

승희

신데렐라는 열두시 우연이는 열한시~~

우연

(자전거 끼익-, 버럭)  
죽는다?

승희

알았어, 알았어. 이제 진짜 안할게. 진짜!  
(자전거에서 내려 맹세를 한다는 손동작)

씩씩거리는 우연. 웃음을 꼭 참는 승희  
사이.

옆을 지나는 차에서 크게 들려오는 노래,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함께 가는 거야~ 나를 믿어 내가 주는 느낌 그걸 믿는 거야~’  
‘내겐 너무 아름다운 너의 밤을 지켜주겠어~~’

승희

(따라 부르며)  
우린 오늘 아무 일도 없겠지만~~  
나 저 노래 되게 좋아한다. 울적할 땐 이어폰 끼고 저 노래만 반복  
해서 듣거든. 그럼 기분이 풀려. 나한테 진통제 같은 거랄까?

승희를 응시하는 우연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

플래쉬백.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닦던 승희의 모습

>

승희

가. 여기서부터 혼자 갈게.

우연

타! 집까지 데려다줄게.

승희

됐다니까. 학교에서 봐. 안녕!

종종걸음으로 걸어가는 승희를 보는 우연,  
피식 웃고는 자전거를 타고 유턴을 하는데

## 23. 과거. 우연 방 / 밤

방으로 들어서는 우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보면, 액정에 - ‘새 비밀번호’  
0... 5... 0... 8... # 누르면. ‘저장 되었습니다’  
히죽 웃는 우연, 침대에 벌러덩 누우면  
아야! 비명소리에 놀라는 우연. 보면, 근남이다.

우연

아 이 씨! 놀래라. 언제 왔냐?

근남

한 삼십분. 어머니가 열어줬어.  
(눕 나간 표정으로)  
나 며칠만 재워줘라. 나 진짜 씨바.. 쪽팔려서 집에 못 간다.

우연

왜? 뭘 사고 쳤냐?

근남

오늘.. 체육학원에서 기합도 받고 꿀꿀해서 야동 한 편 때렸거든.  
근데 (자위 시늉) 막.. 도중에 보니까 책상에 코코아랑 과일이 있는  
거야.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인서트. 방문을 잠그지만 제대로 닫히지 않아 스르륵 열리는 방문. 자위중인 근남이 옆을 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코코아와 과일접시. 허걱!

우연

아 새끼, 칠칠맞게 딸치다 걸리고..

근남

그게 끝이 아냐!! 오늘 이모랑 사촌누나가 왔었는데.. 씨발 누가 들  
어 왔었는지 감이 안 와 씨부랄! (이어지는 울먹임) ..

>인서트. 코코아를 건네다 놀라는 근남모, 이모, 사촌누나, 근남부의 연속컷들

우연

(크크) 나 같으면 자살한다. 자살해. 새끼!

## 24. 과거. 학교 식당 / 낮

컵라면을 먹는 우연 근남.

위압적으로 걸어오는 택기 일당. 택기, 국물을 마시는 우연의 컵라면을 후려치며

택기

더 이상 못 참겠다. 옥상 가자.

우연

왜?

택기

넌 조져야 교통정리가 될 꺼 아냐! 일어나 씨발아!

우연에게 집중되는 주위 시선들. 고민하는 우연, 벌떡 일어서면  
급히 전투자세를 취하는 택기. 근남도 놀라고

우연

교통정리! 그래 하자.

(주위 학생들을 돌아보더니 큰 소리로)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썩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손가락을 까닥하는 택기)

그래 택기. 또 없냐?

(손을 드는 택기 뚫마니 하나)

그래, 김진삼까지 둘. 또! 또 없냐?

(조용한 학생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 학교에서 세 번째다. 알았지?

(뭐야? 황당한 택기 일당. 학생들도 웅성대고)

됐지?

택기

씨발넘이 장난하냐!

퍽. 퍽. 우연의 얼굴에 콕히는 택기의 매서운 펀치.  
하지만 꼭 참는 우연.

우연

자.. 이제 진짜 정리 된 거다!

택기

하, 이 새끼가..

퍽. 퍽. 다시 들어오는 연타. 그리고 세 번째 펀치가 들어올 때  
우연, 택기를 꼭 끌어안으며

우연  
고만하자고. 니가 짱이라고! 그럼 됐잖아!

택기  
이거 안 봐? 확 씨.

근남  
그래 택기야. 우연이 이 새끼 너한테 완전 개꿀었네 뿔!

분위기를 깔아주는 근남. 어이없어 하는 택기와 똥마니들.  
우연의 행동에 의아해하는 학생들의 응성거림  
한편, 멀리 입구 쪽에서 우연을 보는 승희의 표정이 짝한데

## 25. 과거. 동 남자 화장실 / 낮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닫힌 변기칸 너머에서 들려오는 카악~ 침 뱉는 소리  
보면, 변기에 앉아 만화책 ‘데스노트’를 보고 있는 택기  
콧노래를 부르며 페이지를 넘기는데, 문 아래로 슬며시 들어와 택기의 바지를 획 잡아당기는 손

택기  
어, 씨.. 씨발 이거 뭐야? 너 누구야? 야!

택기, 허둥지둥 애써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가는 바지. 바지 속엔 팬티까지 끼어있는데.

택기  
씨발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바지 안내놔!

변기칸 위로 올라오는 택기의 시선에 - 텅 빈 화장실. 패닉에 빠진 택기를 보면서

## 26. 과거. 떡볶이 집 / 밤

미소를 머금은 승희의 시선에 - 맛나게 먹는 우연, 터진 입술에 양념이 닿으면 따가워하면서  
승희, 우연을 귀엽다는 듯 바라보는데. 문득 승희의 시선을 느끼는 우연

우연  
왜? 뭐 묻었어? 아, 내가 약속 지켜서 감동 먹었구나? 그치?

승희  
(피식, 물끄러미 바라본다)

‘뭐지 이 눈빛은?’ 의아한 우연도 승희를 물끄러미 본다.  
이때 서서히 입술을 내미는 승희. 우연도 입술을 내미는데.  
아빨싸! 승희의 입술이 향하는 곳은 콜라 빨대다. 머쓱한 우연  
어처구니없는 승희, 우연의 이마에 딱밤을 놓으며. “틈만 나면 짜식이!”

## 27. 과거. 떡볶이 집 골목 / 밤

소프트콘 아이스크림을 하나 씹 먹으며 가게를 나서는 우연과 승희  
담소를 나누며 걸어가는데  
순간 굳어버린 승희의 시선으로 - 도로를 달려가는 트럭 ‘OO용달’  
급히 돌아서 전신주 뒤에 숨는 승희의 경직된 얼굴. 우연은 영문을 모르겠고.

## 28. 과거. 승희 교실 / 낮

책상에 엮드린 승희. 옆에 놓인 빵, 우유, 초콜릿.  
옆자리에 앉은 걱정스런 우연

우연

좀 먹어! 점심도 안 먹었잖아!

(대답 없는 승희)

어디 아프냐? 혹시 그날이야? 아님 뭐, 엄마랑 싸웠어? 뭔 일인데?

승희

(버럭) 아, 내버려두라고 좀!

돌아보는 여학생들. 우연, 머쓱한 표정으로 일어서며

우연

에이, 승질하고는 진짜!

투덜대며 교실을 나서는 우연, 힐끗 돌아보면 -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가만히 있는 승희  
생각에 잠기는 우연

## 29. 과거. 고등학교 내 여러 장소 / 밤

야간학습 시간의 승희 교실. 책상에 엮드려있는 승희



CUT TO

방송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손. 콘솔의 스위치들을 조작하는 손.  
마이크를 쥔 비장한 표정의 우연, 고개를 끄덕이면. 마이크 전원을 켜는 방송부원1

CUT TO

교실. 뻘뻘 스피커가 켜지며 들려오는 노래 소리

(우연)

내게 약속해줘~ 오늘 이 밤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뭐냐?” 웅성대는 학생들, 승희도 흠칫 놀라는데. 곧 이어 화려한 전자기타 반주가 이어지면서  
“함께 가는 거야 나를 믿어 내가 주는 느낌 그걸 믿는 거야~ ”  
우연이란 것을 직감하는 승희, 눈이 동그래지다가 곧 웃음이 터지는데

CUT TO

방송실. 우연의 노래에 맞춰 열정적인 연주를 뽑내는 밴드부원들  
“내겐 너무 아름다운 너의 밤을 지켜주겠어~”  
(이후 노래 계속 이어지며)

CUT TO

교실. 깔깔 웃기 시작하는 승희. 다른 학생들은 영문을 모르겠고

CUT TO

화장실에 앉은 담임도, 뒷마당에서 놀던 일진들도, 교무실의 선생님들도 황당할 뿐인데

CUT TO

뛰어와 방송실 문을 두드리는 선생들 “어떤 새끼야? 문 열어라! 야!”

CUT TO

방송실. 문을 꽉 잡고 있는 방송부원2. 열창을 이어가는 우연.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

CUT TO

운동장. 턱걸이 중인 근남,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우연의 노래를 들으며 “미친 새끼 지랄하네!”

CUT TO

교실. 우연의 노래에 맞춰 장단을 맞추는 웃음 가득한 승희의 두 눈에 맺힌 눈물에서

### 30. 과거. 남애항 방파제 / 낮

바다를 보며 나란히 앉은 우연과 승희.

우연이 건네는 선물상자를 받아서 열면 - ‘아이리버 mp3’

우연

요 쪼그만 게 노래 60개도 넘게 들어간데. 죽이지?

mp3를 만지작거리며 미소 짓는 승희를 보는 우연

우연

거 고맙단 말 한 마디면 참 좋겠구만..

승희

내가 그 말을 잘 못해. 해본적도 거의 없고.

우연

고맙단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승희

글쎄. 그냥.. 인사 같잖아.

(손바닥을 펴서 내밀며)

손. 나도 줄 거 있어.

우연, 손을 내밀면. 손바닥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승희

우연

아, 간지러워. 으~

승희

가만 좀 있어봐!

간지러움에 몸을 배배꼬는 우연, 시선을 돌려 손바닥을 보면

그림 - 나란히 앉은 소년과 소녀가 입을 맞추고 있다.

서로를 보는 우연과 승희, 두 사람도 입을 맞춘다.

두 사람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

### 31. 과거. 승희 교실 / 낮

교실 안을 기웃거리는 우연의 근심어린 시선에 - 비어있는 승희 책상

우연, 핸드폰을 꺼내 승희에게 전화를 걸면

곧 들려오는 “전화기가 꺼져있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오니...”

### 32. 과거. 승희 집 골목 - 미용실 / 밤

두리번거리며 걸어오는 우연, 주소가 적힌 쪽지를 한 장 들고서  
주차된 OO용달(썸.28) 트럭을 지나는 우연의 시선에 -  
미용실 앞에서 가게를 가리키며 혀를 차는 아줌마 셋  
의아한 우연, 미용실을 향해 다가간다.

“어휴 저것도 남편이라고..”

아줌마들 틈에서 가게를 엿보는 우연의 시선에 - 엉망진창이 된 내부  
바닥에 드러눕다시피 한 중년남, 술병을 손에 쥐고 중얼중얼 거리는  
방 안에서는 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당황스런 우연  
순간 테이블 밑에서 일어서는 승희, 깨진 그릇들을 든 채  
눈이 마주치는 두 사람. 소스라치게 놀라는 승희

우연

전화를.. 너무 안 받길래.

굳어버린 승희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릇들. 와장창-

(승희모)

승희야! 괜찮아?

승희

가!

(머뭇거리는 우연에게 버럭)

빨리 가라니까!

당황한 우연, 뒤돌아 뛰어간다.

어금니를 깨무는 승희. 짹 짹 승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려오는데

### 33. 과거. 학교 승희 교실 앞 / 낮

여전히 비어있는 승희 책상

“전화기가 꺼져있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오니..”

복도를 서성이는 우연. 핸드폰을 짹 손. 불안한 두 눈에서

### 34. 과거. 공중전화 - 고등학교 여러 곳 / 낮

공중전화 숫자키를 누르는 손가락. 핏발이 선 두 눈. 헐쭉한 승희.

신호음이 들리자 곧 받아드는 음성

우연

여보세요! 승희야?

승희

응.

우연

어떻게 된 거야? 전화는 왜 꺼놔서?

승희

그 사람.. 우리 아빠야. 원래 착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그래서 계속 도망 다녔어. 엄마하고. 근데 이번엔 좀 일찍 찾아왔더라.

우연

지금 어딘데? 내가 갈게.

승희

너 참 좋은 애야. 잘 살아.

우연

무슨 말이야? 승희야! 아, 환승희!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승희의 모습에서

CUT TO

시외버스에 타는 승희와 승희모.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버스. 그 위로 -

(우연)

뭔 여자 하나를 못 잊어가지고! 사내자식이!

### 35. 현재. 중학교 화장실 / 낮

광광광- 변기칸 문을 두드리는 우연

우연(연결)

땡땡이 치고 똥간에서 질질 짜면 민정이가 돌아 오냐?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안을 내려다보며)

암마, 진짜 안 나올 거야?

남학생

아 쏘 냅두라고요! 지금 딱 미치겠으니까!

우연

준성아!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뭘했는지 모르지? 지지리 공부 못해서 대학도 못가고 닭 튀겼어!

(우연을 올려다보는 의아한 남학생의 시선)

단골 여대생이 한 명 있었는데. 딱 내 이상형. 애기도 많이 하고, 닭다리 하나 더 주면 커피도 사다주고. 그러다가 내가 사귀자고 그랬더니.. 전 대학 못 간 남자는 싫어요 그러더라! ...

흥미진진하게 듣는 학생에게 썰을 이어가는 우연의 모습에서

### 36. 과거. OO 치킨 / 밤

삐삐삐- 요란한 알람소리. 다 튀겨진 치킨을 꺼내 박스에 담는 손, 두건을 쓴 우연.

“맛있게 드세요!” 손님에게 건네고,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연

한편, 치킨을 먹으며 호프잔을 비우는 근남

우연

재수생이 술이나 처먹고? 모의고사 좀 올랐나보네?

근남

그럼 졸라 올랐지. 3등급 찍었다. 꺼억~~

(호프잔을 다시 채우며)

우연

우와~ 어느 체대 같지는 정했고?

근남

무조건 인서울이지! 이쁜 애들 서울에 다 있는데.

(가방에서 몇 개의 대학 팜플렛들 꺼내며)

너도 함 봐 바. 애들 때깔이 달라.

팜플렛을 대충 뒤적이는 우연,

순간 눈을 부릅뜨며 사진 하나를 뚫어지게 보는데 -

여학실 사진 속 여러 학생들 중 작지만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얼굴... 승희다.

우연, 계산대 옆에서 반구형 돋보기를 집어 사진위에 올려놓으면 확대되어 보이는 승희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기쁨!

우연, 근남이 들고 있는 호프잔을 집어 들더니 마시기 시작하는데

### 37. 과거. 우연 집 안방 / 낮

신문지를 목에 걸친 우연부의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는 우연모,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연부

그래서? 그 승희란 애가 다니는 대학을 너도 가겠다??

우연

사랑도 쟁취하고. 대학도 가고. 일석이조! 일타투피!

우연모

그래 뭐. 자식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근데 어느 대학?

우연

한국대.

우연모

한국대? 서울에 있는 거?

서로를 보는 부모. 푸하하~ 웃기 시작하는데

우연

나 한다면 해!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부모

우연부

ㅋㅋ.. 그래 전공은?

우연

체대.

우연부

왜? ㅋㅋ.. 체대는 좀 쉬울 거 같아서?

푸하하~ 다시 웃음 터지는 부모. 일어서는 우연

우연

엄마, 앞으로 밥은 무조건 비빔밥으로 줘. 반찬 먹을 시간도 아껴야 되니까.

푸하하 “저 자식 근남이랑 서울 가고 싶어서.. ㅋㅋ”

포복절도하는 부모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우연의 진지한 얼굴에서 선행되는 비장한 BGM

### 38. 과거. 여러 장소 [우연의 재수 투쟁기]

우연 방. 책상 다리에 연결된 쇠사슬을 자신의 발목에 묶고 자물쇠를 채우는 우연,  
열쇠는 창밖으로 던져버리는데. 보면, 방안에 수북한 생수통들과 요강, 화장지

CUT TO

우연 방. 책상에 앉아 비빔밥을 먹으며 열공을 하는 우연, 발목엔 쇠사슬 채워져 있고

CUT TO

우연 방. 쇠사슬을 질질 끌며 움직이는 발목. 보면, 벽에 암기과목 요점을 적고 있는 우연  
그 뒤로 코를 막으며 소변통과 요강을 들고 나가는 우연모

CUT TO

우연 방. 사방의 벽을 가득 메운 요점정리들. EBS 수능을 보며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우연

CUT TO

우연 방. 참고서를 읽으며 팔굽혀펴기를 하는 우연. 책상에 비빔밥을 놓고 나가는 우연모

CUT TO

우연 방. 화이트보드에 쓰인 문제 ‘의자 6개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앉을 때 여학생이 이  
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풀이를 설명하다 복장이 터지는 근남  
“이 새끼야,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세냐? 순열로 풀어야지! 여학생 둘을 하나로 치고..” “그럼 의  
자가 더 남잖아?” “아놔! 씨발 때려 쳐. 때려 쳐!”

CUT TO

우연 방. 마침내 순열풀이에 성공하는 우연, 좋아서 환호하며 잠이 든 근남을 흔들어 깨우면서

CUT TO

해안도로를 달려가는 우연과 근남. 근남의 스피드에 전혀 밀리지 않는 우연

CUT TO

잠옷차림의 우연모, 욕실 문을 열고는 깜짝 놀란다. 뛰어오는 우연부,  
보면 - 변기에 앉아 책을 보다 잠이 든 우연. 우연 부모의 안쓰러운 표정에서

CUT TO

우연 방. 힘겨운 표정으로 비빔밥을 먹는 우연. 순간 웹- 밀려오는 역겨움. 책상 앞에 붙은 한국  
대 팜플렛 사진 속 승희를 보는 우연, 꿀꺽 밥을 삼키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CUT TO

해안 도로를 달리는 우연, 투지가 타오른다.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점점 빨라지는 두 발에서

CUT TO

수능시험장.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험을 치르는 우연의 모습에서

화이트 아웃

### 39. 과거. 한국대학교 캠퍼스 / 낮

화이트 인. 봄기운 만연한 캠퍼스 전경  
'2007 새내기 한국인을 환영합니다' 등등 정문에 걸린 여러 현수막들  
삼삼오오 걸어가는 학생들이 지나는 정문 옆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른 우연,  
오가는 여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연(Na)

*삼일동안 미대를 뒤흔었지만 승희는 없었다. 승희가 어느 과에 다니는  
지 원무과에 물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CUT TO

긴장된 표정으로 캠퍼스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니는 우연의 모습들이 이어지며

우연(Na)

*음대, 상경대, 자연과학, 공대에도 없었다. 다음은 어디를 뒤흔어야 할  
까 고민할 때, 문득 그게 떠올랐다.*

뭔가 생각 난 우연, 후다닥 달려간다.

### 40. 과거. 떡볶이 집 / 낮

두리번거리며 걷는 우연의 시선에 - 떡볶이를 파는 가게들  
사이

멈칫하는 우연.

보면, 어느 가게 앞에서 친구 소정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는 승희,  
제법 멋을 부린 여대생의 모습. 가봉마네킹과 원단 말대들이 든 가방을 멘 채.  
감격스런 우연, 천천히 다가가서

우연



승희야!

승희

(돌아보고 깜짝 놀란다. 이내 눈물을 글썽이더니)

우연아.. 우연아!!

(와락 우연을 껴안는데. 화면 정지)

우연(Na)

내가 기대한 것은 이런 거였다. 하지만 승희는..

승희

(혼란 & 황당)

너 여기서 뭐해?

#### 41. 과거. 대학가 인근 골목 / 낮

오르막 골목을 걷고 있는 우연과 승희. 가봉마네킹과 원단말대들을 든 우연

승희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기부 입학도 아닐 거고.

우연

원래 천재라니까. 안 해서 그렇지.

승희

암튼 축하해.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다니.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는 승희. 승희를 거드는 우연

전단지에 적힌 - 중고생 과외. 한국대 의상학과 수석입학 hp 019 000 0000

우연

넌 어쩌다 의상학과를 갔냐?

승희

없던 꿈이 생겼거든. 내 이름 걸고 브랜드 하나 만들려고.

(테이프 찝 붙이고 걸어간다)

우연

(전단지에서 전화번호 하나 떼서 주머니에 쏙)

과외는 많이 뛰냐?

승희

수업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틈틈이 이것저것 다른 알바도 하구.

골목을 돌아서는 승희의 시선에 -

한 2층 집 앞에 선 쌀집 트럭에서 쌀을 내리는 배씨와 집주인 미세스 민

승희

저기가 우리 하숙집인데, 저 아저씨가 우리 아줌마한테 완전 들이대  
거든. 됐다 그래도 맨날 쌀 퍼주고 꽃 보내고.

우연

좋아하면 원래 다 주고 싶고 그런 거야.

승희

(우연을 힐끗)

근데 넌 어디 살어?

순간 우연의 눈에 확 들어오는 글귀 - 빈방 있음

## 42. 과거. 하숙집 마당 / 밤

평상에 앉아 식사중인 학생들. 바비큐 그릴에 구워지는 삼겹살과 목살. 접시를 들고 선  
2대8 가르마에 안경을 쓴 수표, 근남, 우연

미세스 민

(수표 근남 우연에게 고기 구워 나눠주며)

도박, 외박, 땡땡이 금지다. 남친 여친 데리고 오는 건 괜찮은데 혼  
숙 합숙 안 돼! 내가 혼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로 자식 유학  
보낸 니들 부모님 심정을 잘 아니까.

(현관을 나와 급히 뛰어나가는 남학생1,2를 향해)

야, 니들은 고기 안 먹고 어디가?

“소개팅요. 늦었어요!” 뒤도 안돌아보고 대문을 나서는 남학생들

우연, 테이블에 앉으면. 맞은편의 근남과 수표, 옆엔 멧쟁이 똥보 공자다.

수표

87이면 우리하고 값이네. 우리도 재수니까. 호텔경영학과 최수표다.  
집은 마산.

공자

의상학과 구공자여. 집은 공주. 공주 귀공자 구공자! (히죽)

반갑다! 악수를 하는 우연 근남 수표 공자 (이하 4인방) 인사를 나누는데  
이때 2층 현관문을 나서는 승희, 웬지 굳은 표정의

공자

승희 선배, 같이 드셔요!

우연

승희야 같이 먹자.

승희

(말없이 계단을 내려온다) ...

공자

아, 승희 선배가 니 친구여?

근남

응. 같은 고등학교. 뭐 금방 전학 갔지만.

수표

아, 족보가 꼬였뻤네. 우린 존대말 하는데.

공자

(양푼에 밥 잔뜩 비비며)

우연아, 밥 칼칼하게 비빌건디 같이 뜰려?

우연

나 비빔밥 끓였다.

승희

(계단 아래에 서서)

우연아! 잠깐 얘기 좀.

“어!” 씬을 우걱우걱 씹으며 승희에게 다가오는 우연, 해맑은 표정으로 승희 앞에 서면

승희

나, 남자친구 있다.

(멍한 우연을 보며)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괜히 서로 불편해지지 말자고!

우연

(표정관리, 히죽)

아.. 그럼. 난 또 무슨 얘기라고.

#### 43. 과거. 우연 근남 방 / 밤

벌컥벌컥 캔 맥주를 비우는 우연. 마른 오징어를 뜯는 근남, 뭔가 번뜩 떠오른다.

근남

야 야! 남자가 있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잘 된 거야.

우연

뭔 닭소리냐?

근남

(오징어 다리 열 개를 펼치며)

봐라! 남친이 없어. 모든 새끼가 경쟁자지? 엔분의 일!

(오징어 긴 다리 두개만 펼치며)

근데 남친이 있잖아! 그 새끼만 제껴! 이분의 일! 택기도 그랬잖아!

우연

(말이 된다!!)

오, 새끼 천재데!

근남

(으쓱, 오징어 긴 다리 하나 흔들며)

야, 그 새끼가 수표 공자 동아리 회장이래!

오징어 긴 다리 하나를 뜯어 씹는 비장한 우연의 표정에서

#### 44. 과거. 대학 운동장 / 낮

“레디 헛!” 격렬하게 부딪히는 미식축구 선수들. 토스를 받는 쿼터백, 백넘버 9 Y.K.LEE  
수비수 둘을 제치고 롱 패스. 멋진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볼. 패스 성공.

와!! 감탄하는 벤치의 신입생들. 4인방도 보이고

CUT TO

“레디 헛!” 토스를 받는 넘버9, 패스를 하는 척 하다가 단독 돌파  
대여섯의 수비수들을 제치고 터치다운을 하는데

와!! 박수를 치는 신입생들. 박수를 치지 않는 굳은 우연의 시선에 -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다가오는 넘버9, 헬멧을 벗으면 잘생긴 훈남 윤근이다.

근남

택기 보다는 좀 잘 생겼는데?

우연

괜찮긴? 딱 나이트 빼끼 관상이구만.

CUT TO

윤근

손바닥을 볼에 다 붙이진 말고. 손가락은 요 매듭에 걸고. 팔꿈치는  
귀 정도에서...

신입들에게 볼을 던지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윤근을 노려보는 우연

윤근

(우연에게)

너 한번 던져볼래?

우연, 진지한 표정으로 볼을 힘껏 던지면, 뽀뽀뽀뽀 꼬꾸라지는 볼.  
빠드득 이를 가는 우연. 윤근, 다시 시범을 보여주며

윤근

그게 아니라 요 매듭부분을 이렇게 꺾 줘고/

우연

아, 줘봐요. 혼자 해볼 테니까.

의아한 윤근의 손에서 볼을 집어 드는 우연의 눈에 -  
음료수 봉지를 들고 걸어오는 승희와 소정. 그리고 승희가 미소 지며 손을 흔든다.  
우연, 승희를 향해 손을 흔들다가 문득 옆을 보면 윤근도 손을 흔들고 있는데.  
우연을 못 본척하는 승희. 굳은 우연의 팔을 슬그머니 내려주는 근남

소정

(외침) 음료수 드세요!

음료수를 받으러 몰려드는 학생들 속 우연의 시선에 -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승희와 윤근  
우연의 굳은 표정 보면서

#### 45. 과거. 의상 실습실 / 낮

실습중인 학생들 사이로 보이는 다리미 작업중인 승희와 소정. 뒷줄의 공자도 보이고.  
다른 생각에 잠긴 승희를 힐끗 보는 소정

소정

야, 나 개 소개 좀 해줘라.

승희

누구?

뒷줄의 공자, 관심 가득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소정

개 있잖아. 너네 하숙집에. 키 크고. 잘 생긴 애!

승희

아... 개.

소정

삼수 한 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재수했다고만, 알았지?  
왜? 여친 있어?

승희

아니. 그건 아닌데..

공자

(상체를 두 선배들 사이로 들이밀며, 히죽)

딱 저네요. 하숙집에, 키 크고, 잘 생기고, 여친도 없고!

‘애 뭐야?’ 돌아보는 승희 소정. 소정은 머쓱한 공자에게 스팀을 칩~ 싸버리고

소정

승희야, 알았지! 해 줘!

#### 46. 과거. 대학 인근 골목 / 낮

걸어가는 우연과 승희.

우연

싫어.

승희

진짜 괜찮다니까. 그 언니 너랑 딱이야. 아주 죽이 척척 맞을걸!

우연

날 그렇게 잘 아냐?

(멈춰서서 승희 뺨히 보며)

한번 들어나 보자. 난 어떤 여자랑 어울리는데?

승희

에이, 관둬라 관둬. 너만 손해지 뭐.

걸어가는 승희, 뒤를 따르는 우연.

문득 승희의 시선에 - 차고 앞에서 봉고에 힘겹게 (외제 고대기)박스들을 옮겨 싣는 노부부  
얼른 다가가 박스를 옮겨 실으며

승희

저희가 도와 드릴게요. (우연에게) 뭐해? 거들어!

노인남

아..아냐, 학생. 이거 우리가 하면 돼.

우연

잠깐이면 되는데요 뭘.

(박스들을 옮겨 싣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되는데..” 적잖이 당황스러워 하는 노부부.

## 47. 과거. 하숙집 마당 / 밤

열린 창문으로 인터넷 랜선을 건네는 승희.

승희

너들도 좀 깔아! 대학생이 인터넷도 없이!!

수표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랜선에 연장케이블을 끼워 연결하는 수표. 카메라, 길게 이어진 연장케이블을 따라가면서.

#### 48. 과거. 동 우연 근남 방 / 밤

어두운 방.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포르노 배우들의 교성  
창문을 통해 넘어 온 랜 선이 연결된 컴퓨터에 쓰인 ‘우연이 컴’  
나란히 앉은 4인방, 냇을 놓고 모니터를 보다가 배우들의 체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는데  
꿀꺽~ 마른침을 삼키는 녀석들  
사이  
이때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뭐 경찰?” “아! 뽀르노 보면 잡아가나?”  
당황하는 4인방, 급히 컴퓨터 끄고 불을 켜고 법석을 떠는데

우연

(대충 정리가 끝나면 천천히 문을 열고)  
무슨 일이신데요?

형사

(우연을 끌어내며)  
너 같이 좀 가자.

우연

아니 왜.. 왜 이러시는데요?

“가보면 알아!” 끌려 나가는 우연. 당황스런 근남 수표 공자.  
이때 밖에서 들려오는 승희의 음성 “아 무슨 일이시냐고요?”  
근남 수표 공자, 창밖을 보면 - 여순경에게 끌려 대문을 나서는 승희

근남

환승희는 왜 잡아 가? 진짜 다운로드 걸린건가?

공자

승희선배 IP 추적했구먼! 컴퓨터 우연이꺼고.

수표

우와~ IT 강국, 장난 아이네!  
(포르노 CD들이 가득한 아디다스 박스를 보며)  
아이 씨, 이거 다 우짜지?

#### 49. 과거. 경찰서 / 밤



형사 책상 앞에 나란히 앉은 우연과 승희

“저질들!” 우연을 찌려보는 승희. 우연은 할 말이 없고.

CCTV 모니터 - 우연과 승희가 봉고에 박스들을 싣고 나서 노부부가 쥐어주는 돈을 받는다.

반장

차떼기 절도단이 저런 노인네들인지 누가 알았겠냐?

형사

그러게요. 새 파란 대학생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반장

저것들 확실히 조져봐! 고과 좀 팍팍 올려보자.

네! 형사, 걸어가 책상에 앉으면

우연

아저씨! 앤 잘못 없는데 보내주시죠!

형사

다 덮어쓰게? 의리있다?

승희

진짜예요. 전 정말 몰랐다니까요!

우연

(형사에게 상체를 다가가며 히죽)

사실 뭐.. 혈기왕성한 애들이 외국꺼 핫하다니까 호기심으로다.. 술  
직히 아저씨도 그랬잖아요?

형사

이 새끼가 경찰을 뭘로 보고! 6년 콩밥 먹여 줘?

우연

네? 6년이요? 아니 뭐 그거가지고..

형사

(승희에게) 너, 할아버지 할머니 연락처 대!

승희

네? 다.. 돌아가셨는데요.

형사

확! 가중처벌 받는다?

승희

(울먹)

난 얼굴도 못 봤어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반장

(보다 못해 끼어들며, 버럭)

이거 완전 독종이구만. 니 아빠도 모른다고 하겠다?

승희

인연 끊고 살아요! 그게 죄예요?

우연

아니 왜 아픈 가정사까지 끌어들이요?

반장

우와~ 이것들 강적들이구만 강적!

(우연 보며) 너, 돈 얼마나 받았어?

우연

무슨 돈요?

반장

돈 받은 거 다 알려 임마! 증거 다 있다고!

승희

돈 받고 뽀르노 보여줬나? 쓰레기 같은 새끼!

우연을 발로 차고 때리는 승희. 영문을 모르겠는 경찰들

## 50. 과거. 동 철창 안 / 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우연과 승희

순간, 푸웃- 웃음이 터지는 승희. 우연도 따라 웃기 시작하고. 킬킬대는 두 사람

형사

그 노인네들 잡혀서 호송중이라니까 좀만 기다려 봐.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에 혀를 차며)

여자한테 그렇게 줘터지고도 즐겁냐?

돌아서는 형사. 웃음이 잦아드는 두 사람

우연

근데 너.. 윤근이 형 언제부터 좋아한 거냐?

(우연을 향한 승희의 시선)

그냥 좀 궁금해서.

승희

너.. 3초 이야기 알아?

우연

3초?

승희

사람한테 아, 이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시간이 3초래.

처음 만나는 순간일수도 있고, 알고지내는 사이였다가도 갑자기

달라 보이는 순간이. 실기 치는 날, 수험표를 떨어뜨렸는데..

>

인서트. 실기시험 준비물과 수험표를 주워주는 미식축구복 차림의 윤근, 부드러운 미소 지며  
“꼭 합격하세요!”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윤근 백넘버 'Y.K.LEE' 바라보는 승희

>

승희

그때.. 딱 3초였어.

굳어버린 우연의 시선을 인지하는 승희, 어색하게 돌아앉아 움츠리며

승희

아.. 춥다.

철창에 등을 기대는 우연의 표정관리 안 되는 얼굴에서

## 51. 과거. 하숙집 / 밤

침대에 뒹굴어있는 근남. 술을 마시는 우연, 윗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영 거슬린다.

벌떡 일어서는 우연, 창문을 열고 위를 올려다보면 승희 방에서 들려오는 윤근의 웃음소리  
부글부글 끓는 우연, 방을 나가, 계단을 뛰어올라간다.

CUT TO

2층 현관을 들어서는데 우연, 안방 문을 쿵쿵 두드리며

우연

아줌마! 아줌마!! 우연인데요. 좀 나와 보세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고개를 내미는 짜증난 미세스 민

미세스 민

왜? 무슨 일인데?

우연

아줌마! 하숙집하면, 젤 중요한 게 면학분위기 조성 아니니까? 네?

미세스 민

그..래서?

우연

근데 이 신성한 하숙집에서 남자 여자가 한방에서.. 밤마다.. 이게 되겠어요?

(적잖게 당황하는 미세스 민)

옆방 뒷방은 공부 하건 말건. 밤마다. 방 안에서 소곤소곤. 킁킁대고 (이어지는 불평) ...

카메라 이동하면, 방 문 뒤에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는 배씨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는데

미세스 민

뭐.. 일부러 그랬나? 외롭게.. 오래 살다보니까 뭐...

우연

여기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딴어요? 다~ 집 떠나서 혼잔데! 나도 외로워서 사리가 나올 판이에요!

이때 문 뒤에서 나오는 배씨. 영? 황당한 우연

배씨

학생.. 미안해.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학업에 방해를..

미세스 민

(발끈, 우연 먹살 틀어잡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래, 우리가 너 공부 방해 좀 했다. 너 학

점 얼마데? 맨날 술만 쳐먹고 다니는 놈이. (이어지는 뉘달) ..

배씨

미세스 민! 참아요 참아!

우연

아니. 저기..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이를 보는 놀란 하숙생들. 근남 수표 공자가 달려와 말려보지만 막무가내인 미세스 민  
승희와 윤근도 밖으로 나와 이를 보는데

미세스 민

그래! 하숙집 아줌마는 사랑 좀 하면 안 되냐, 엉?

우연을 몰아세우는 미세스 민. 먹살이 잡힌 채 승희를 바라보는 우연의 눈빛.  
상황파악이 되는 승희, 표정이 굳어버리고.  
두 사람의 표정을 읽는 윤근, 그림이 그려지는지 피식 웃는데

## 52. 과거. 캠퍼스 공원 / 낮

계단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고 있는 4인방. 풀이 죽은 우연.  
수표, 우연이 입은 흰색 셔츠 어깨가 파랗게 물이 든 것을 보고

수표

아이고, 술에 떨어가꼬.. 니 파란거하고 섞어서 빨았드나?  
야, 의상! 이런건 우째 빼노?

공자

베이킹 소다나 사과식초. 니들 그거 아냐? 요즘은 전공별로 프로포  
즈가 유행이라. 행정학과면, '동사무소 가자 혼인 신고하러!' 식품영  
양은 '라면 먹고 갈래?' 난, (줄자 꺼내며) 딱 내 싸이즈구먼!

근남

체육학과는, 너하고 땀을 흘리고 싶다! 폼 약한가?  
(수표에게) 야, 호텔경영은?

수표

그건 또 우리과가 전문아이가! 험.. 잠깐 쉬었다 가자!

낄낄대는 녀석들, 하이파이브도 하고. 우연은 말없이 아이스크림만 핥는데

이때 앞을 지나가는 한 글래머 백인 여학생에 시선이 끄히는 수컷들

수표

야, 저 딸아는 누구고?

근남

독일 교환학생이라던디.

수표

누구랑 교환했길래 저런 천사가 오노?

아이스크림을 공자에게 건네고 공자 스카프를 뺏어 매면서 뛰어가는 수표, 교환학생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공자

야동을 원체 보니께 백인여자 거부감이 없어.

이때 옆 벤치에 앉는 귀여운 스타일의 여대생  
그녀가 마음에 드는 근남, 아이스크림을 무스처럼 머리에 바르고 공자에게 건네고 다가간다.

근남

저.. 제가 신입생이라 길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쪽 집에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돼요?

푸웃- 웃는 여대생. 기회를 놓칠세라 옆에 앉아 빠꾸기 이어가는 근남

공자

짜짓기 하러 대학 왔남? 저것들 오늘 카네이션은 커녕 집에 전화도  
안 드렸을 거여.

우연

오늘 어버이날이냐?  
(아이스크림을 공자에게 건네고 달려간다)

공자

저 늬이 효자였구먼!  
(손에 든 아이스크림 네 개를 본다)

### 53. 과거. 하숙집 골목 - 코란도 안 / 밤

걸어오는 우연. 손에 쥔 선물가방  
살짝 들뜬 표정으로 전방의 하숙집을 향하는데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옆 골목에서 등장하는 흰색 코란도 속 윤근과 승희  
멈칫하는 우연. 천천히 걸어가 코너를 돌아보면  
하숙집 옆에 멈춘 코란도. 차 뒷유리를 통해 보이는 윤근과 승희의 모습  
경직된 우연의 시선에 - 키스를 하는 두 사람  
꽉 쥐는 주먹. 흔들리는 두 눈. 악재무는 어금니.

CUT TO

코란도 안. 윤근과 입을 맞추며 슬쩍 눈을 뜨는 승희의 시선에 - 우연의 실루엣  
승희, 더 진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윤근의 손을 제지하는데  
순간. 펑! 뒷유리에 박히는 돌. 요란하게 울리는 자동차 경고음. 깜짝 놀라는 승희와 윤근.  
윤근, 승희를 감싸 안으며

윤근

괜찮아? 어디 다친데 없어?

고개를 끄덕이는 승희. 차에서 뛰어나가는 윤근,  
유리에 박힌 돌을 보더니 사방을 향해 버럭

윤근

야! 누군지는 몰라도 용건 있으면 얼굴 보면서 하자! 나오라고!!

굳어버린 승희의 표정. 윤근은 연신 소리를 질러대는데  
카메라가 비추는 - 우연이 서있던 곳에 남겨진 찢어진 쇼핑백, 으깨진 상자 속 목걸이

CUT TO

다른 길. 인적 없는 길을 달려가는 발. 이를 악문 우연의 얼굴에서

우연(Na)

*어떤 인간이 그랬다. 첫사랑은 사랑의 걸음마라고.*

## 54. 과거. 하숙집 거실 / 낮

활짝 열려있는 방 문. 거실에서 빈방을 응시하는 승희의 표정

우연(Na)

*넘어지는 것을 먼저 배워야 나중에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 55. 과거. 캠퍼스 / 낮

걸어오는 승희, 맞은편에서 오는 우연을 본다. 서로를 보는 두 사람, 서로를 외면하고 지나간다.

우연(Na)

또 어떤 인간은 그랬다.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다 개소리다.

## 56. 과거. 캠퍼스 어느 벤치 앞 / 낮

평화로운 캠퍼스 정경.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대학 라디오 음악 방송

걸어가는 승희와 소정의 시선에 - 벤치에 누워있는 우연

형클어진 머리, 어깨 한쪽이 푸르스름하게 물든 하얀 셔츠

소정

학기가 바뀌어도 행색은 여전하네. 저런 걸 소개해 달라고 내가!  
어휴, 저렇게 누워만 있을 거면 서울역이라도 가던지. 역시 승희 니  
가 소개팅 안 해 준 이유가 있었던 거야. ...

이어지는 소정의 험담. 왠지 밝지 않은 표정의 승희

승희

어머, 언니! 너 눈썹 짝짝이 같은데!

소정

헉! 진짜?

“아, 안되는데!” 거울을 꺼내 호들갑 떠는 소정과 걸어가는 승희, 슬쩍 뒤를 돌아보는데

CUT TO

눈을 감고 있는 우연의 얼굴을 가리는 승희의 그림자

승희

그 옷 좀 어떻게 하지?  
(대답 없는 우연을 보며 한숨)  
아, 황우연! 야!

돌아놓는 우연에게 다가가는 승희, 벤치를 툭 차며

승희



그만 좀 씹지! 야!!

우연

(짜려보며 버럭) 왜??

## 57. 과거. 의상학과 실습실 / 낮

서로를 마주 보고 선 두 사람. 부릅뜬 우연의 시선에 - 한 손을 내밀고 있는 승희

승희

뭐 해? 빨리 줘!

어쩔 수 없는 우연, 셔츠를 벗어 건네면.

작업대에 셔츠를 펼쳐는 승희. 한편 옆에 놓인 스케치북에 그려진 ‘셔츠 리폼 디자인’  
천을 자르고, 붙이고, 꿰매는 승희  
점점 새롭게 변해가는 우연의 셔츠  
진지한 표정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승희를 보는 런닝 차림 우연의 멍멍한 눈길

CUT TO

리폼 셔츠를 입은 우연을 유심히 살펴보는 승희의 뭔가 아쉬운 표정.  
그런 승희를 물끄러미 보던 우연의 시선에 - 승희의 목걸이.

우연

(어금니를 깨물며)

3초? 3초라고?

(서로 부딪히는 시선)

난 뭐였는데? 1분? 5분? 18분?

승희

왜 또 이래? 다시 잘 지내보자고 이러는데 넌 또..

우연

이사 가고 연락은 왜 끊은 건데? 내 전화번호 주소 전부 그대론데!  
내가 어떻게 여기 온 줄 알아? 너 여기 다니는 거 알고. 개줄로 묶고 공부했어. 니 옆에. 당당하게 있고 싶어서!

승희

(고개 숙이며 한숨)

참 대책 없다. 내 마음이 어떤지 확인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냐?

우연

니 마음? 니 마음이 왜? 넌 아니었던 거야? 나 혼자 좋아하고 착각  
했던 거니?

승희

싫어졌어.

우연

뭐? 내가?

승희

아니 내가.

(떨리는 음성)

그 날, 강릉에서.. 깨진 창문으로 니가 날 봤을 때. 그 꼴을 하고 있  
던 내가 정말 죽도록 싫었거든. 그때 날 보던 니 눈, 니 표정 잊을  
수가 없어서.. 자꾸 생각나고 자꾸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내 자신이  
더 싫어지고 미칠 것 같았던 말이야.  
왜.. 다시 나타난 거냐고!

우연

(돌처럼 굳은, 가까스로 씩씩하게 미소 머금으며)  
.. 도망가지 말 걸 그랬다.

승희

...?!

우연

도망 안 가고 널 안아줄 걸. 괜찮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  
줄 걸.

우두커니 선 승희를 두고 쭈뼛쭈뼛 돌아서는 우연의 모습에서

## 58. 과거. 도서관 / 낮

책장에 꽂힌 책들을 뒤적이는 우연의 귀에 들리는 낮익은 음성

“10박 11로 유럽 7개국 도는 거야.”

“와 부럽다. 난 외국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돌아보는 우연의 시선에 - 한 여학생과 구석 책장 사이로 들어가는 윤근

윤근

같이 가자. 배낭여행은 원래 일,이학년 때 가는 거야. 나중엔 취업 준비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

여대생2

근데.. 유럽 비싸잖아요.

윤근

오빠 있잖아. 비행기 값만 들고 와.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여대생2

음..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이어지는 윤근의 작업 멘트

책장 너머에서 이를 듣는 우연의 굳은 얼굴. 하지만 이내 책을 꺼내들고 걸어간다.

CUT TO

열람실의 북적이는 학생들. 공부에 열중인 수표 공자 근남 옆에 와서 앉는 우연, 공부에 집중을 하는데. 그 위로 선행되는 - 우렁찬 함성소리

## 59. 과거. 어느 운동장 / 낮

스코어보드 - 대학리그 결승 한국대 16 : 27 00대. 본부석에 놓인 트로피와 꽃다발 목걸이들.

“레디~ 헛!” 볼을 받는 윤근. 사이드 수비수를 뚫고 달려 나가는 우연,

윤근을 향해 패스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면

본체만체 단독돌파를 시도하는 윤근

하나 둘 세 명의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달려가서.. 터치다운!

환호하는 선수들 속 매니저 승희와 소정

“이윤근 나이스!” 윤근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선수들

의기양양한 윤근. 떨떠름한 표정의 우연

스코어보드 - 한국대 22 : 27 00대 남은 시간 1:29

CUT TO

보너스킥을 차는 선배1. 골인. 환호하는 한국대

스코어보드 - 한국대 23 : 27 00대

벤치를 향해 들어가는 선수들, 교대하며 나오는 수비팀을 향해

선배1

야, 디펜스! 이번에 수비 막고 역전 함 해보자! 아자아자!!

벤치에 앉은 공격팀 선수들

발에 쥐가 나 드러누운 근남을 마사지 해주는 수표 공자

근남

(윤근에게)

이러다가 진짜 우승 하는 거 아니에요?

윤근

그러게. 나도 떨린다. 실은.. 나 이번 대회에 내기 걸었거든.

수표

얼마짜리요?

윤근

(옆에 앉은 우연을 힐끗보더니)

돈 말고. 승희한테, 방학 때 둘이 유럽 배낭여행 가자고 그랬거든.

(표정이 굳는 우연. 근남은 우연의 눈치를 힐끗 보는데)

안 된다는 걸 막 즐겼더니. 우승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더라!

지도 진짜 이럴 줄 몰랐던 거지.

표정관리가 안 되는 우연, 돌아보면

선수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는 승희와 소정

벌떡 일어서는 우연,

승희의 손을 잡고 스탠드 쪽으로 끌고 가는데

승희

(손을 뿌리치며)

놔. 왜 이래?

우연

유럽을 가? 저런 인간하고 배낭여행 가고 싶냐?

승희

(한숨)

너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건데?

우연

정신 좀 차려, 이 등신아! 니 남자친구, 다른 여자애한테도 유럽배낭  
여행가자고 꼬시더라. 내가 다 들었어. 아마 개 말고도 더 있을걸!

붉으락푸르락 하는 우연. 표정이 싸늘해지는 승희

승희  
차 때려 부순 걸론 부족했냐? 성이 안 차?  
(당황하는 우연)  
너, 정말 실망이다!  
(걸어간다)

멍하니 선 우연. 한편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윤근의 미소

CUT TO

“레디~ 헛!” 과광!! 스냅과 동시에 부딪히는 양 팀. 멍하게 서있다 태클로 쓰러지는 우연.  
패스할 곳을 찾는 윤근, 다른 선수에게 패스. 하지만 실패하고  
“헛!” 직접 돌파를 시도하는 윤근, 거친 태클을 당하며 전진 실패  
이어지는 실패들  
흘러가는 시간. 아쉬워하는 선수들  
스코어보드 - 한국대 23 : 27 00대  
가쁜 숨을 내쉬는 우연의 시선에 - 벤치의 굳은 표정의 승희  
전광판의 남은시간 ‘3초’를 보는 우연의 두 눈에서

CUT TO

한국대 허들 (작전전달대형)

윤근  
남은 시간 신경 쓰지 마! 3초 다 써도 공만 바닥에 안 떨어지면  
온플레이야! 알았어?  
(네~ 복창하는 선수들)  
리시버들 최대한 벌려주고. 라인맨들 절대 넘어지지 마라!  
이번 작전은 샷건!

파이팅을 외치며 공격대형으로 흠어져는 선수들  
단호한 표정의 우연, 근남 공자 수표에게

우연  
내가 뚫을꺼야. 니들이 스크린 좀 걸어줘!

근남 수표 공자  
니가?

우연  
(비장한) 꼭이다!

공격 라인업. 좌우를 살피는 윤근, 마른침을 삼킨다.  
“레디~ 셋~ 헛!”

스냅되는 볼을 들고 빠지는 윤근, 패스를 하는척하다가 돌파시도  
 하지만 달려드는 수비수들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상황  
 전광판의 시계는 멎었고  
 이때 윤근을 뒤에서 수비수가 덮치려는 순간 달려오는 우연의 외침 “패스!”  
 태클에 쓰러지는 윤근의 토스. 그 볼을 받아 쥐는 우연의 턴, 전진을 시작하면  
 우연의 앞을 막아서는 수비수. 그를 향해 몸을 날리는 근남. 광~  
 그 틈으로 달려가는 우연. 우연을 향해 돌진하는 수비수 셋  
 위기의 순간. 우연 앞으로 치고 나와 몸을 날리는 수표, 광! 수비수 하나를 쓰러뜨리면  
 과광! 수비수 둘을 꺼안고 쓰러지는 공자  
 공자의 등을 밟고 넘어가는 우연의 모습에서 시작되는 - 고속촬영  
 환호를 지르기 시작하는 한국대. 우연을 향해 달려드는 상대 선수들.  
 하나는 뛰어넘고, 하나는 따돌리고 또 하나는 가까스로 밀쳐내고 달려가는 우연  
 환호하는 한국대 선수들과 응원단 속 의아한 승희도 보이는데.  
 헬멧 사이로 보이는 우연의 두 눈. 몰아쉬는 가쁜 숨 헉헉-  
 20야드.. 15야드. 엔드라인을 향해 달려가는 우연의 두 눈에  
 >  
 인서트. 승희가 했던 말들. “느낌이 오는 시간이 3초래.”  
 “너, 정말 실망이다!” “왜 다시 나타난거냐고!”  
 >  
 이를 악무는 우연. 10야드... 5..  
 마침내 터치다운!! 환호하는 한국대 선수들과 응원단  
 열광하는 응원단 속 가만히 선 묘한 표정의 승희.  
 역시 묘한 시선으로 우연을 보는 윤근. 스코어보드 - 한국대 29 : 27 00대  
 가쁜 숨을 내쉬는 우연  
 달려오는 선수들, 우연을 꺼안고, 헬멧을 두드려대고 난리가 난다.  
 달려와 선수들의 목에 꽃다발 목걸이를 걸어주는 학생들. 승희는 윤근에게 걸어주고  
 “수고했다!” 우연의 머리를 톡톡 치는 윤근, 다른 선수들과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데  
 윤근을 노려보는 우연. 부르르 떨리는 주먹  
 으아아! 괴성을 지르더니 퍽- 퍽 윤근을 때리기 시작한다.  
 놀라는 승희. 비틀대던 윤근, 곧 반격을 시작하고.  
 “미친 새끼가!” 우연을 때리는 선배들과 말리려는 선수들로 난장판이 되는데  
 주먹을 주고받는 우연과 윤근에서 고속촬영 시작되며  
 퍽. 퍽. 오고가는 주먹에 부서지는 꽃다발 목걸이에서 튀어 오르는 색색의 꽃잎들  
 말리고 뜯는 선수들 위로 휘날리는 꽃잎들과 풀잎들  
 부감으로 - 내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꽃밭에서 벌어지는 전투 같은데.

## 60. 현재. 중학교 교무실 / 낮

화면 가득한 아름다운 꽃들. 보면, 모니터를 응시중인 우연.  
 모니터 - ‘000 꽃배달 홈페이지’ 속 여러 카테고리들

‘결혼/축하’ 클릭하면 곧 뜨는 수많은 축하화환 샘플들

‘높은가격순’ 클릭. 그중의 제일 비싼 ‘5단 특화환 21만원’ 클릭하면 뜨는 - ‘축하문구 입력란’  
손톱을 씹는 우연, 이내 키보드를 두드린다.

‘축 결혼. 부디 잘 먹고 잘 살아라!’

마음에 안 드는 우연, 전체 삭제 후 다시 두드리는데

‘잊을만하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날 흔들어놓던 너! 세 번째는 몰라도 네 번째는 정말 만나지 말  
았어야 했었어. 도대체 너하고 난 전생에 무슨..’

>

인서트. 아주 긴 축하문구 리본을 휘날리며 예식장으로 배달되는 축하화환

>

이때 모니터에 뜨는 에러문구 - ‘문구는 20자 이내입니다’

빠드득! 이를 가는 우연

## 61. 과거. 캠퍼스 어느 외진 장소 / 밤

성큼성큼 걸어가는 승희의 굳은 시선에 - 주차된 코란도 속 두 사람의 실루엣  
윤전석 문을 열면, 스킨십을 나누는 윤근과 여대생2가 화들짝 놀라는데

윤근

아.. 승희야..

승희, 어색한 미소를 머금은 윤근에게 대쉬보드에 놓인 커피를 뿌려버리면  
“앗 뜨거!” 차에서 뛰어내려 호들갑을 떠는 윤근을 경멸스럽게 보는 승희,  
차 안의 여대생2를 본다. 겁을 먹고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여대생2

여대생2

뭐.. 너 뭔데? 난 진짜 몰랐단말야!

승희

니 주위엔 저 새끼 조심하란 친구.. 없었지?

영문을 모르겠는 여대생2. 돌아서 걸어가는 승희의 마음이 무거워 보인다.

## 62. 과거. 우연 방 / 낮

재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내부. 침대에 누워 책을 뒤적이는 우연,  
울리는 핸드폰을 받아든다.

우연

여보세요!

(승희)

군대 간다며?

우연

(당황, 일어나 앉아)

아.. 응. 내일 아침에. 근남이 새끼 같이 가준다더니 여자 친구랑 스키장 갔다. 의리 없는 새끼.

(승희)

내가.. 배웅 해줄까?

### 63. 과거. 버스 안 / 낮

달려가는 버스 안.

과자를 먹으며 각자 창밖을 보는 우연과 승희 간의 어색한 침묵

승희

어휴 쪽팔려! 진작 니 말 듣는 건데.

우연

됐어. 대신 내가 많이 패쳤잖아!

승희

에레이~ 윤근이 개새끼!

(히죽)

이렇게 욕 한번 해주면 금세 후련해진다!

우연

에레이~ 윤근이 개새끼!

킁킁대는 두 사람

승희

에레이~ 윤근이 소새끼!

우연

에레이~ 윤근이 소새끼!

이어지는 새끼 말장난. 앞좌석에 앉은 LA 모자를 쓴 남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창밖으로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면서

#### 64. 과거. 어느 식당 / 밤

“군 생활 잘하고!!” “잘 다녀와” “건배~”

입대하는 친구를 위한 마지막 술자리들이 한창인 내부. 창밖엔 눈이 내리고.  
불판에 지글거리는 닭갈비. 소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우연과 승희

승희

나 막차 끊어 왔다! 술 먹이고, 차 놓쳤으니까 어쩔 수 없네. 자고  
가 레파토리, 죽어!

우연

에이, 나 또 콘돔 괜히 산거야?

웃음 터지는 승희. 우연도 같이 웃고

짖- 부딪히는 잔. 밝은 표정으로 소주를 삼키는 두 사람, 대화를 이어간다.  
지붕위에 소복하게 쌓여가는 눈 보면서

#### 65. 과거. 민박집 / 낮

화면 밝아지면. 방바닥에 놓인 우연의 팬티, 런닝, 셔츠와 옷가지들  
배만 가린 채 알몸으로 자고 있는 우연, 번쩍 눈을 뜬다.

이불 속을 들여다보면 벌거벗고 있는 자신. 도무지 기억이 없다. 혼란스런 우연의 표정에서

CUT TO

눈이 쌓인 마당. 우연이 방문을 열면, 장독에서 동치미를 꺼내는 여주인

우연

아주머니! 혹시.. 제 친구는?

여주인

하이고! 말도 마라. 가 아니었음 니 어제 죽을 뻔했다.

CUT TO - 어젯밤

광광광- “우연아! 우연아!! 야!!”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는 승희

여주인

거 와이리 씨그럽노?

승희

아주머니! 친구가 취해서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나봐요. 벌써 사십분도 넘었어요.

여주인

아이고. 저 안에 역수로 추볼끼네.

장도리로 문을 뜯는 여주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승희, “어맛!” 눈을 돌리고 뒤이어 보는 여주인도 눈을 찌푸리는데 “하이고, 저걸 우짜노?”

CUT TO

여주인

아무리 흔들어깨아도 눈뜯 기미도 없제. 웃이고 궁디고 전부 동침을 해가고 엎어져 자는거를 우짜노?  
(완전 낮이 나간 쇼크 상태의 우연)  
따신 물 받아가 다 씻기고, 옷 다 빨아가고 빨리 마르라고 방바닥에 깔아놓고 새벽차 안탔나! 아가 참 참하드만.

우연

네??? 승희가요? 아주머니가 씻긴 게 아니고요?

여주인

내가 와? 친조카 기저귀도 안 갈아주는데.

패닉상태에 빠진 우연, 머리를 쥐어뜯으며 허공에 주먹도 날리고 발길질도 날려대면 발길질에 펄럭이는 담요. 베개 밑에 놓여있던 종이가 바람에 날려 장롱 밑까지 날아가는게 보면, 종이에 적힌 승희의 글씨 -  
‘민망할까봐 그냥 간다. 자대배치 받으면 꼭 전화해. 면회 갈게 ^^’  
이어지는 우연의 몸부림에 다시 펄럭이는 담요. 바람에 밀려 장롱 아래로 사라지는 종이 보면서

## 66. 과거. 부대 공중전화 / 낮

공중전화에서 통화중인 상병.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이병 우연, 방한모를 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들면 -  
잡지에서 찢어낸 광고 ‘상큼해요! 레모나’ 속 미소 지는 승희 물끄러미 사진 속 승희를 보는데  
상병이 통화를 끝내고 나가면 부스로 들어가는 우연,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른다. 하나 둘 셋..  
멈칫하고 다시 사진 속 승희를 보는 우연의 긴 한숨  
수화기를 내려놓는 우연, 돌아서 걸어간다.

점점 멀어지는 우연의 모습에서 공중전화 박스 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함박눈..  
함박눈은 서서히 화사한 벚꽃 잎이 되었다가.. 여름 소나기가 되었다가.. 낙엽이 되고..  
다시 눈이 오고.. 벚꽃 잎이 지고.. 낙엽이 떨어질 때..  
멀리서 걸어오는 전역모를 쓴 우연,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간다.

## 67. 과거. 이자까야 / 밤

벽걸이 TV - 2012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가 흐르고.  
“건배!” 부딪히는 잔들. 어느 덧 이십대 후반에 접어든 4인방과 우연 옆자리의 민경. 수표는 중  
위 계급을 달았고.

민경

여성 심리학, 아동 심리학은 있는데 왜 남성 심리학은 없겠어요?

공자

개네들은 도무지 밀도 끝도 없이 복잡미묘해서!

민경

(푸웃)

아동 심리랑 남성 심리랑 똑같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  
빠 애처럼 방목하잖아, 그치?

피식 웃는 우연. “우연아 부럽다!”를 연발하는 친구들  
이때 울리는 민경의 핸드폰

민경

옥, 아빠다.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일어서 가게를 나간다)

수표

야, 민경씨가 글케 부잣집 딸이라메? 꼭 잡아라. 처갓집에서 아파트  
해준다카문 무조건 네 감사합니다! 알았제?

우연

무슨 처갓집이나 벌써?

수표

뭐가 벌써고? 졸업하면 선생님 될 거고 바로 가뿌는 거지.

우연

실기 남았다니까.

공자

그러니까! 실기는 니들 둘 다 껌이잖여!

근남

나도 강남 부잣집 딸 만나고 싶은데 이상하게 지방 애들만 걸려!

공자

이상허긴 니미! 자취생만 집중공략하는 새끼가.

근남

자취하는 애들이 젤 예쁜데 어찌냐? 이모! 여기 특대같은 대짜. 소  
주 두병하고. 계산은 최중위가 하는 거지?

수표

새끼들이 어디 국방비로 술을 처묵을라고! 내 딱 세 점 못다 확 마..  
(울리는 핸드폰을 받아들며)  
통신보안 중위 최수표입니다. ... 충성! ...

“충성은 무슨?” “짬돌이 새끼!” 수표를 놀리며 통화를 방해하는 친구들.  
여전히 철없는 4인방의 모습 보면서

## 68. 과거. 스포츠센터 / 낮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사이로  
역기를 드는 여자를 개인트레이닝 중인 우연

우연

자, 회원님! 마지막 세 개. 하나.. 둘.. 둘.. 둘..

## 69. 과거. 거리 / 낮

오가는 인파들 속 홍보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는 강사들, ‘OO피트니스’ 점퍼를 입은  
공손하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우연  
사이  
순간 우연의 귀를 자극하는 어떤 소리. 멈칫하고 돌아보면  
오고가는 인파들 너머에서 들려오는 - 낮익은 웃음소리. “푸하하~~ 쿵..”  
인파를 헤집고 들어서는 우연의 표정이 순간 멍해지는데

보면 - 박장대소를 하며 걸어가는 승희와 한 남자. 테이크아웃 커피에 화사한 커피를 입고  
이젠 성숙한 아름다움이 묻어나지만 여전한 승희의 웃음소리  
떨리는 우연의 시선에 - 걸어가는 승희 커플의 뒷모습  
멀어지는 승희를 바라보는 우연의 아련한 시선에서

## 70. 과거. 000 스튜디오 / 낮

지하층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오는 우연  
내부로 들어서면. 커튼이 닫혀있고, 의상 카탈로그를 정리 중인 여자, 앞에 놓인 모니터 속  
- 승희와 남자, 파이팅 넘치는 포토그래퍼의 지시에 따라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더 우아하게! 세련된 미소!!”  
사이  
모니터 속의 남자, 화장실이 급하다는 시늉을 하며 빠져나가더니 곧 커튼을 열고 나와 뛰어간다.  
우연의 시선에 - 커튼 사이로 멀리 보이는 승희

**포토그래퍼**

자, 승희씨 단독 가자. 상큼발랄하게! 야, 좀 새로운 표정 없어?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며 미소 지는 승희  
찰칵- 찰칵-  
우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승희를 바라보는데  
포즈를 바꾸는 승희, 문득 우연을 보고는 멈칫하더니 눈이 동그래지면

**포토그래퍼**

오, 표정 좋은데! 좀 더. 그렇게!

머쓱한 우연, 승희를 향해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미소지면  
승희도 환하게 미소 지고  
“딱 좋아! 그런 표정 처음인데!” 연이어 터지는 셔터소리 들리며 시작되는 따뜻한 느낌의 BGM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는 승희의 미소  
승희를 바라보는 흐뭇한 우연의 모습에서

## 71. 과거. 거리 / 낮

BGM 이어지며. 강북의 어느 도심 골목을 걸어가는 두 사람  
웃으며 나누는 대화는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이어진다. 마치 오래전 그 시절처럼.

## 72. 과거. 수제 맥주점 / 낮

맥주 제조공정이 훤히 보이는 테이블. 나란히 앉은 우연과 승희

승희

어쩌다 잡지모델 사진 좀 찍었더니 이백을 주는거야! 알바가 몇 달  
치야? 이런 거 딱 한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 했던게.. 지금까지 와버  
렸어.

우연

너 케이블에서 몇 번 봤었어. 맛따라 시장따라.

승희

그 한 달 만에 없어진 걸? 아, 쪽팔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찡그리다가, 우연 손의 반지를 보고)  
여자친구?

우연

아, 민경이라고. 09학번. 심리학과 대학원.

승희

언제 밥 먹자. 내가 고기 살게!

우연

그래. 넌? 남자친구?

승희

관심 없어. 이 바닥 별의별 캐릭터 보면서 워낙 실망을 해서.  
야, 한국 여자양궁이 왜 세계 일등인지 알아?  
(가우뚱하는 우연)  
(활을 연거푸 쏘는 시늉을 하며)  
싸 죽이고 싶은 놈들이 많아서!

푸웃- 웃는 두 사람

이때 승희 핸드폰에 뜨는 문자 메시지

승희, 메시지를 보더니 실망스런 표정으로 한숨을 쉰다.

우연

뭐 안 좋은 일?

승희

다음 주에 일 도와주기로 한 언니가 있었는데 안 되겠다네.

우연

무슨 일?

승희

지방 일들이 많아서 그 언니가 며칠 운전해주기로 했었거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장거리 운전이 좀 짝세서..

우연

내가 해줄게. 나 요즘 시간 많아!

승희

그래? 일당 오만 원 콜?

우연

어허, 고급인력을! 육만 원에 밥값 따로.

승희

콜!

### 73. 과거. 송어 양식장 / 낮

단풍이 우거진 산골짜기에 넓게 자리 잡은 양식장. 물보라를 일으키며 돌아가는 수차들  
까아악~ 물속에서 펄떡이는 송어들을 잡지 못해 끙끙대는 승희  
한쪽에서 미소 띤 얼굴로 이를 보는 우연  
송어 한 마리를 꺼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승희, 뭉부림치는 송어 꼬리에 얼굴을 맞고 이내 엉덩  
방아를 찧고 울먹인다. 하지만 아랑곳없이 웃으며 촬영을 이어가는 카메라맨과 조명  
이를 바라보는 웃음기 사라진 우연의 표정에서

CUT TO

테이블 가득 놓인 송어 상품들. 승희, 송어 상품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으며

승희

맛있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송어로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 74. 과거. 도로 - 승희 차 안 / 밤

도로를 달려가는 승희차. 뒷좌석에 놓인 건조 송어 박스 두 개도 보이고.

운전석의 우연.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승희.  
사이. 빨간불에 멈춰서는 차  
코를 골며 뒤척이는 승희.  
우연, 외투를 벗어서 승희를 덮어주고 물끄러미 본다.

## 75. 과거. 강릉커피축제 / 낮

푸른 하늘에 펼쳐이는 애드벌룬 ‘2012 제4회 강릉커피축제’  
광장에 늘어선 하얀 천막 부스들, 북적이는 관광객들, 진열된 커피상품들  
축제를 담은 몇 몇 방송 팀들의 모습들도 보면서

CUT TO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승희차.  
차가 멈추면, 한쪽에서 준비 중인 촬영팀에게 다가가는 승희

승희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피디님! (연신 인사를 이어간다)

한피디

승희씨, 의상이 좀.. 커피축제에 놀러 온 거야 리포팅 하러 온 거  
야? 패션 센스가 그것밖에 안돼요?

승희

아, 죄송해요. 금방 갈아입을게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차를 향해 뛰어가는 승희. 이를 보는 우연의 굳은 표정에서

## 76. 과거. 고급 한정식 집 / 낮

고풍스러운 한옥의 방문이 양쪽으로 부드럽게 열리면 -  
큰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 뒤의 한복차림의 승희, 다소곳이 상 뒤에서 큰 절을 올리고

승희

75년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군산 성정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  
니다.

CUT TO

접시 위에 생선회를 가지런히 올려놓는 승희의 미소



CUT TO

지글지글거리는 돌판을 집어 들며 환한 미소를 지다가 “앗 뜨거!” 돌판을 떨어뜨리면.  
투덜대는 한피디, 상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니 어찌니 하면서

승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지는 사과) ...

카메라 뒤쪽에서 이를 지켜보는 애처로운 표정의 우연,  
일부러 시선을 돌리는데. 문득 눈에 들어오는 - 승희 솔더백에서 빠져나와 있는 소셜책  
책을 꺼내 뒤적이는 우연, 순간 멈칫하는데. 보면 -  
첫 장에 승희의 글씨로 ‘2012.8.30. 을지문고. 엄마랑 동대문 가는 길’  
묘하게 떨리는 우연의 두 눈  
고개를 돌려 승희를 보면, 여전히 저자세로 음식상을 다시 세팅하는 것을 거두고 있는 승희

## 77. 과거. 승희 집 골목 / 밤

주택가 골목길에 정차 중인 차 안. 우연에게 봉투를 건네는 승희

승희

자, 오늘 일당. 수고했어.  
(찜찜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는 우연)  
잘 가고 모레 보자.

우연

저기!  
(승희 돌아보면)  
저.. 내가 오버하는 거 일수도 있는데..

우연이 가방에서 꺼내 건네는 종이 몇 장  
보면 - OO패션, OOO어패럴 패션디자이너 신입경력 채용 공고들이다.

승희

(의아한 눈빛) ...?

우연

너무 아까워서.

## 78. 과거. 승희 방 / 밤

침대 밑을 뒤지고 있는 승희, 오래된 스케치북 몇 권을 꺼낸다.  
한 권을 집어 펼치면 - 디자인 스케치들  
한 장 또 한 장. 우연 셔츠 리폼 디자인도 보이고  
옛 감성에 젖어드는 승희

(승희)

아깝다고?

(우연)

너 지금 일하는 모습도 멋있어. 근데 솔직히 너 디자인 스케치할 때  
훨씬 더 멋있었어. 니가 처음 꿇던 꿈이잖아.

스케치북들 중 맨 아래 것을 꺼내 펼치면  
- 우연 손바닥에 그린 소녀와 소년. 물감으로 정성스레 색을 입힌 그림  
(썸30. 손바닥 그림을 스케치북에 다시 그린 그림)  
그림 속 소녀와 소년을 쓰다듬는 승희의 손길에서

## 79. 과거. 국도 - 승희 차 안 / 낮

달리는 소나타. 표지판 - 설악산 100km  
얼굴에 마스크 팩을 붙인 승희가 진지하게 보고 있는 'HITE 맥주 광고 콘티'  
승희, 슬쩍 우연을 본다.  
밝은 표정으로 운전 중인 우연이 듄직하게 느껴지는 승희  
이때 기어박스에 놓인 우연의 핸드폰에 도착하는 문자. 액정에 - 용의자 X 심야영화 어때? 민경  
힐끗 보는 승희의 시선. 핸드폰을 집어 액정을 힐끗 보고 주머니에 넣는 우연  
어색한 침묵. 뭔가를 망설이는 승희, 마스크 팩을 떼면서

승희

근데 너, 왜 군대에서.. 전화 안 했냐?

우연

응? 뭐.. 워낙 정신도 없고 틈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차  
이때 핸드폰 울리면. 번호를 보자 반색하며 집어 드는 승희

승희

네 피디님! 지금 가고 있어요. 처음 하는 TV 광고데 메이크업 잘 받  
으려고 마스크 팩도 붙이고..

(당황) 네? 여자4가 없어졌다고요?

(사이)

그 애길 몇 시간 전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보세요? 최피디님!

경직된 승희. 눈치를 보는 우연

승희

좀 세워줄래?

터널을 나오는 차. 꺾- 갓길에 서면

## 80. 과거. 국도 변 / 낮

내려서는 승희, 몇 발을 걸어가 난간 앞에 선다.

난간을 꼭 쥐 손. 실룩거리는 입술. 진정이 안 되는 승희,

이를 악 깨무는 승희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

이때 차에서 내려서는 우연. 승희 손을 뒤로 뺀어 혼자 있게 해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가만히 선 우연의 안쓰러운 표정

눈물을 닦는 승희. 이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우연

에레이, 최피디 개새끼!

(멈칫하는 승희)

에레이, 최피디 쌍노무 새끼!

승희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며)

그걸.. 기억 해?

우연

그럼 못하냐? 니가 나한테 한 말인데!

에레이, 최피디 호로 새끼! 에레이, 최피디 먹같은 새끼!

우연을 향한 승희의 묘한 표정. 다가오는 우연, 승희를 차에 밀어 넣으며

우연

타. 지금 딱 갈 데가 생각났어.

## 81. 과거. 춘천 산토리니 / 낮 - 석양

한 지중해풍 카페 겸 펜션 건물 입구에 붙은 - 내부 수리 중  
아쉬운 우연, 다른 입구를 찾아 걸어가면. 뒤를 따라가는 승희

CUT TO

정원으로 향하는 철문 앞에 선 두 사람

승희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돌아서다가 멈칫하는 승희의 시선에 - 쪼그려 앉아 깍지 낀 손을 내미는 우연  
‘진짜?’ ‘빨리 안타고 뭐해?’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피식 웃는 승희, 깍지 낀 손에 발을 올려놓으면서

CUT TO

정원으로 들어서는 승희, 투덜대며

“대체 뭘 보여주려고...”

이내 곧 말문이 막히는 승희의 시선으로 -

멀리 내려다보이는 춘천시 전경과 호수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석양

그리고 넓은 잔디밭 끝에 선 지중해 풍의 하얀 종탑

승희

(다가와 옆에 서는 우연을 힐끗)

음~~ 월담 할 만한데!

히죽 웃고는 망루로 가는 승희

계단에 앉은 우연, 흐뭇한 미소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승희를 바라보는데  
사이

춘천호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보며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승희

난 니가 한 번도 연락이 없길래, 아 잊었나보다 했었지.

우연

어떻게 잊냐? 버스만 타면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그러는데!

승희

(푸웃)

아 진짜 환승. 개명을 하던가 해야지.

근데, 나도 니 생각 많이 했어.  
(의아한 표정의 우연을 보며 히죽)  
또 팔라되서 어느 뚱간에 쓰러져 자다가 입 돌아간 건 아닌가?

우연

야!!!

승희

또 있는데.. 밤 열한시만 되면.. 아, 우연이 바쁘겠구나.  
(푸하하~ 켕)

우연

또 또 이상하게 웃는다!

승희

신데렐라는 열두시, 우연이는 열한시!

우연

이게 진짜 죽는다!

깔깔대며 놀리며 도망가는 승희와 뒤를 쫓는 우연  
사이  
마침내 승희의 팔을 낚아채는 우연. 어정쩡한 자세로 서로를 보는 석양에 붉게 물든 두 사람  
묘한 분위기. 뒤섞이는 시선들  
천천히 다가가는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다.  
키스를 이어가려는 순간. 우연을 밀어내는 승희.  
뒤엎히는 두 사람의 눈빛에서 묻어나는 갈등과 안타까움  
승희의 팔을 풀어주는 우연의 손. 돌아서는 승희의 복잡한 표정

우연(Na)

대학 땐 윤근이 형. 그땐 민경이. 우린 왜 항상 엇박자였을까?

## 82. 과거. 차 안 - 승희 집 앞 / 밤

서울 도심을 달려가는 차. 운전석의 우연. 조수석의 승희.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는데

우연(Na, 연결)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 내가 승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보단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게 운명  
이고 인연인거다. 근데, 그건 정말 극복이 안 되는 걸까?

연립주택 앞에 멈춰서는 차.

“잘 가.”

차에서 내리는 승희,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운전석에서 내리는 우연

우연

나, 너 좋아해.

(당황하는 승희)

알아. 좀 복잡한 거.

만약에.. 민경이가 없었으면. 내 마음 받아줄거니?

승희

(한숨, 사이)

나도.. 너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 근데/

우연

그럼 됐어.

(차에 탄다)

승희

야! 어쩌려고? 야!

(부아앙- 멀어지는 차를 향해)

야, 황우연!

시야를 벗어나는 차를 보는 승희의 긴 한숨. 가로등 불빛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혼란스러워하는 승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 83. 과거. 대학 운동장 / 낮

클로즈업 - 딴 생각에 잠긴 우연의 얼굴.

탕! 출발하는 학생들

110m 허들을 향해 달려간다. 근남도 보이고. 뒤늦게 달려가는 우연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다가 스텝이 꼬이더니 넘어져 구른다.

힘겹게 일어서는 우연의 시선에 - 양손 가득 음료수를 들고 오는 민경의 미소

CUT TO

트랙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는 학생들. 스탠드에 앉은 우연과 민경. 어색한 침묵

민경

요즘 내가 많이 달라진 걸 느껴. 원래 오빠한테 하루에 문자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였는데,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어젠 세어보

니가 열아홉 번이더라. 아주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  
(말없이 고개 숙인 우연을 힐끗 보고)  
그 동창이라는 여자.. 오빠 첫사랑이지?

우연

..응.

민경

아직도.. 좋아해?

우연

...응. 미안.

민경

(애써 피식)  
바보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련이야.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  
기와 갈증 같은 거라고.

이때 Ding! 우연의 핸드폰에 도착하는 문자.  
재빨리 폰을 집어 드는 민경의 시선에 - '우리 이제 안 보는 게 좋겠다. 미안. 승희'

민경

봐! 오빠 혼자 착각 한 거잖아. 그거 사랑 아니야. 이 여자도 아니래  
잖아.

우연

아니.. 맞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경의 눈에 맺히는 붉은 눈물. 이내 울음이 터지는 민경  
으앙~~ 어린애처럼 서럽게 울어대는데  
놀란 학생들과 근남의 시선들. 입술을 깨물며 고개 숙이는 우연의 모습에서

## 84. 과거. 병원 입구 / 낮

옥상정원난간에 걸린 현수막 '축 개원 하지정맥류 클리닉'. 입간판을 설치중인 인부들도 보이고  
촬영 준비 중인 스태프들 뒤로 마이크를 쥐고 멘트를 연습중인 승희

승희

날씬한 다리 라인을 위해 여성분들이 즐겨 입는 레깅스, 스키니진,

하이힐이 다리 정맥을 압박해서 하지정맥류를 유발한다는 사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남양주 한양병원에 하지정맥류 클리닉이 개원한다고 해서 찾아와봤는.. (멈칫)

굳은 승희의 시선에 - 성큼성큼 걸어오는 우연

승희

문자 못 봤어? 이제 보지 말자고 했잖아!  
앞으로 나 끊고, 민경씨한테만 집중 해. 알았어?

우연

헤어졌어.  
(당황하는 승희를 향한 흔들림 없는 눈빛)  
얘기했어. 나한테.. 니가 어떤 의미인지.

승희

너 정말.. 나 별 볼일 없는 애야. 집안도 팍이고. 알잖아?

“숫 들어가겠습니다!”

승희

나.. 지금.. 일해야 돼.  
(돌아선다)

어어! 순간, 위에서 들려오는 외침. 올려다보는 우연의 시선에  
- 입간판 철골에서 떨어져 나오는 대형 간판이 건물 벽에 광광 튕기며 승희를 향하는데  
“승희야!” 본능적으로 달려와 승희를 껴안는 우연 위로 광-  
사람들의 비명소리 들려오고. 희뿌연 먼지가 걷히면  
아래에 깔린 승희의 시선에 - 우연의 어깨와 머리에서 흐르는 피

우연

(힘겨운 목소리)  
너... 괜찮아?

굳어버린 승희의 표정에서

## 85. 과거. 병실 / 밤

침대에 기대앉은 우연, 왼쪽 어깨를 휘감은 두꺼운 붕대  
의자에 앉은 승희,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



승희

어떡해? 다음 주가 실기 시험이라며.  
(씹쓸하게 미소 짓는 우연)  
바보야, 피했어야지.

우연

눈앞에서 다치게 그냥 뒤? 8년을 넘게 좋아한 여자를?

승희

(떨리는 음성)  
바보야.. 버스 놓치면 다음 버스 온다! 세상의 반이 여자다! 넌.. 그런 말 몰라?

우연

넌.. 그거 알아? 서울인구 천만의 반, 오백만 명! 그 중에 내 또래만 한 십만 명 잡자. 그 중에서 연애중이거나 유부녀들 빼면 한 오만 명 남겠네. 거기서 경주황씨 동성동본 빼고! 재벌, 권력층 우리나라 최상위 1프로 빼! 난 개들 싫거든.

(흔들리기 시작하는 승희의 눈빛)

수녀님, 비구니 스님들도 빼고.. 국제결혼 하는 여자들 빼고.. 내 친구들, 친척들이 사귀거나 좋아했던 여자들도 빼. 얹히면 복잡하잖아! 세상의 반이 여자면 뭐 해? 환승희.. 니가 아닌데!

승희

..!!!!

천천히 우연의 손을 잡는 승희, 우연에게 입을 맞춘다.  
가만히 승희의 입술을 받는 우연, 갑자기 승희를 밀어내며

우연

이제 3초 온 거야?

승희

응. 슈퍼 울트라 메가 3초! 너 이제 각오해!

와락 승희를 껴안으며 키스를 퍼붓는 우연  
열정적으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키스  
우연, 승희를 침대에 눕히며 커튼을 닫으려면

승희

(제지하며 놀란 눈으로)

진짜?

우연

여기, 아무도 안 와 이제.

승희

다친 데는? 실밥도 안 풀었잖아?

우연

녹는 거야. 괜찮아!

드르륵- 커튼을 닫으면서

CUT TO

불 꺼진 병실. 흔들리는 바퀴. 들려오는 우연의 끄끙대는 소리  
보면 - 환자복 바지 허리끈을 풀려고 끄끙대는 우연  
풀릴 기미가 전혀 없는 짝 묶인 허리끈. 우이 씨~  
피식 미소 지는 승희, 솔더백에서 눈썹칼을 꺼내든다.  
눈썹칼을 쥔 손. 쑥스러운 듯 망설이는 승희  
서로를 바라보는 우연과 승희. 푸웃! 터지는 행복한 미소.  
싹둑- 잘리는 허리끈.

## 86. 과거. 동 병실 / 낮

화창하게 맑게 갠 아침. 새들의 지저귀는 노랫소리  
잠에서 깨는 우연, 미소 가득한 표정으로 창가로 걸어가 쏟아지는 햇살을 향해  
기지개를 활짝 펴면 보이는 - 환자복 바지에 채워진 가족벨트.  
경쾌한 톤의 BGM 선행되며

## 87. 과거. 예쁜 길 (이자가야 앞) / 낮

우연과 승희 손을 잡고 걸어간다. 사랑이 넘치는 표정으로.

승희

(손수건을 꺼내 펼치며)

짜잔! 디자이너 환승희의 첫 작품, 어때?

우연

당연히 최고지! 내 옷은 언제 만들어 줄 거야?

담소를 나누며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일정한 간격으로 점프를 하는데  
점프를 할 때마다 두 사람의 의상이 바뀌고 승희의 작품들은 세련되어 진다.  
사이  
승희가 만든 셔츠를 우연이 극찬하며 이자까야로 들어서면  
먼저 온 근남 수표 공자가 두 사람을 반기며

수표

우연아, 니 고등학교 취직됐다메? 축하한다!

화기애애한 모습 이어지면서

## 88. 과거. 우연 오피스텔 / 낮

“한심해서 그런다 이 바보야!” “바보? 말이 좀 심하다?”  
버럭 대는 우연과 승희의 성난 음성. 책상에 놓인 명품핸드백.

우연

너 생각해서 산거거든! 그동안 선물 하나 못 해준 게 미안해서.

승희

(통장을 흔들며)

6개월 동안 달에 월급에서 십만 원씩만 모았어도 60만원은 있겠다  
남자가 그렇게 무계획이니? 적금 안 부어? 전세 안 구해? (고지서  
흔들며) 이 카드 값 좀 봐!

우연

바보냐? 전세가 일이년 모으면 되니? 서울에서?

승희

그래서 평생 월세로 살래? 내 생각은 안 해?

우연

같이 살 생각은 있는 거네?

씩씩대는 두 사람. 순간 뒤엎키는 눈빛

우연

키스하고 싶어.

승희

빨리 안하고 뭐해?

와락- 뒤엎키는 두 사람

CUT TO

이불속에 나란히 누운 우연 승희.

승희는 우연 손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은 - 이불속에 마주보며 누운 소년과 소녀

승희

내가 신용불량자에 도박 빚만 십억이면?

우연

내 장기라도 팔아서 다 갚아주지! 아님 내가 감옥 대신 가준다.

승희

치매가 왔어! 내 머릿속의 지우개야. 벽에 막 뚫칠해!

우연

벽지대신 타일붙이고 침대에 방수포 깔고 살지.

승희

교통사고로 팔 다리가 다 잘렸어!

우연

완전 다행이지! 절대 도망 못갈 거 아냐.

승희

방사능에 노출이 됐어. 눈이 세 개고 혀가 이렇게 길어졌어!

우연

음.. 그건 안 되겠는데!

낄낄대는 두 사람, 귀엽다.

## 89. 과거. 어느 고등학교 복도 / 낮

터벅터벅 걸어가는 다리. 굳은 표정의 우연, 짐을 담은 라면박스와 쇼핑백을 들고서

우연(Na)

계약직교사란게 파리목숨이긴 했지만 역시 임용고시 1급을 따지 못

한 것이 문제였다. 앞으론 지방 사립 중학교 쪽으로 알아보란 충고를 듣고서 집을 썼다.

찢어지는 쇼핑백. 쏟아지는 물건들을 집어 드는 우연

## 90. 과거. 수표 집 / 밤

부엌에서 음식을 그릇에 담는 수표. 마루에 걸린 수표 결혼사진. 신혼 가구들. 잘 차려진 음식에 술잔을 기울이는 우연 승희 근남 공자 그리고 수표처. 모두들 취기가 있는데 특히 불과한 우연

수표처

우리 오빠 완전 FM이잖아요. 대학부터 계획대로 척척. ROTC에, 장교 월급.. 주식해서 돈 벌어. 제대하자마자 호텔에 취직해. 호텔에서 운 좋~게 저도 만나고.

공자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집도 사.

근남

짬돌이 새끼..

수표처

대출이 어마어마해요. 은행의 노예라니까요.

수표

(음식 그릇을 들고 와 나눠주며)

혜주 너는 오빠야가 상환 계획 다 짜놔다니까 와 자꾸 그런 걱정 하노?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우연

야! 인생이.. 계획대로 되디? 혼자 사는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공자, 애 창업한다고 집에서 돈 가져다가 육개월 만에 수천 날리고 결국 취직했지. 근남이는 출퇴근용 중고차 사자마자 사고 나서 이천만 원 물어주고 폐차했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친구들. 우연에게 눈치를 주는 승희

승희

(우연 술잔 뺏으며)

황우연씨! 자제 좀 하시지?

우연

내가 뭐? 제수씨, 결혼은 뽕센거예요! 얼마나 뽕세면.. 노벨평화상! 넬슨 만델라도 이혼을 했겠어요? 그 뜨거운 사막 감옥에서 27년 동안의 고문을 참아낸 사람이. 결혼해서 6개월 만에 이혼했다니까!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어서려는 수표처를 만류의 눈빛을 보내는 승희

공자

아, 왜 그러 자꾸 좋은 날?

우연

뭘? 조연을 해주는 거지. 참 제수씨.. 수표 아디다스 박스 두 개있죠. 그거 다 야동 씨던데. 이 자식은 뭐 버릴 줄을 모르거든요...

수표를 보는 수표처. 움찔하는 수표.

승희

일어나. 나가서 얘기 좀 해. 어서.  
(우연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현관으로 떠민다)  
(친구들에게 작은 소리로)  
실은 학교 그만 뒀어. 이해 좀 해줘.

“그랬구나!” 끄덕끄덕하는 친구들,  
자기들끼리 건배를 하려는데 “아.. 아얏!” 수표의 귀를 잡아당기는 수표처.

## 91. 과거. (복도식) 아파트 복도 / 밤

터벅터벅 걸어가는 우연을 뒤따르는 승희가 성큼성큼 속도를 내면  
“아니 내가..” 변명을 하려는 우연을 뒤에서 꼭 끌어안는 승희의 두 팔.  
의아한 우연, 뒤로 돌면 고개를 푹 숙인 승희. 두 손으로 고개를 들어보면 울고 있는 승희

우연

(당황스런)  
왜 울어?

승희

다 나 때문 인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다쳐서 임용고시1급 못 따는 거고, 그래서 학교 구하기가 더 힘든 거잖아.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니가 이러니까 더..

우연

미안해.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약속, 응!  
(눈물을 닦아주고 껴안는다)

승희

그냥 계약이 빨리 끝나고 FA로 풀렸다 생각해. 조급해 하지 말고.

우연

FA? 오케이! 5년에 한 백억 불러봐?

승희

음.. 좀만 낮춰서. FA는 세금이 반인데 50억 세금내면 아깝잖아.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미소 짓는 두 사람

이때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수표, 아디다스 박스를 네 개 들고서

수표

아이 씨! 이거 진짜 오랫동안 모은긴데. 회귀본도 있고!

수표처

(현관에서 버럭)

그래서 아깝냐? 내일부터 회귀한 밥 상 차려줘?

수표

CD는 플라스틱 재활용 맞제?

크크 웃는 우연 승희

## 92. 과거. 스포츠센터 / 낮

우우웅- 진공청소기의 요란한 소음. 청소기를 돌리는 우연의 무표정한 얼굴

아악! 역기에 깔린 한 배불뚝이 남자고객의 비명

고객님! 뒤늦게 달려가는 우연의 모습에서

## 93. 과거. 우연 오피스텔 / 밤

클로즈업 - 깜박깜박 거리는 한글문서창의 커서

‘책임감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의 꿈은 항상 / ‘  
모니터를 노려보는 우연의 시선에 들어오는 십여 줄의 문장들 속 몇몇 단어들 -  
‘자기소개서’ ‘꿈’ ‘체육인이 되고자 했었으나’ ‘졸업 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  
그리고 책상 한쪽에 놓인 몇 개의 대기업 입사지원서 양식들  
우연의 긴 한숨소리 들으면서

CUT TO

삐삐삐. 도어락 소리 들리고. 현관을 들어서는 승희, 마트 봉지를 든

승희

뭐야? 왜 전화 안 받아?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승희의 시선에 - 뒹아떨어진 우연, 여기저기 늘어진 술병들.  
승희, 다가와 모니터를 힐끗 보면 공란으로 비워져있는 자기소개서  
한숨을 쉬는 승희, 의자에 털썩 앉더니  
물끄러미 잠 든 우연을 응시하는데  
등을 돌리고 누운 런닝 차림의 우연 어깨의 상처  
한편,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우연은 자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 94. 과거. 고궁 / 낮

화창한 하늘.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고궁. 야외촬영중인 예비부부도 보이고  
아름드리 고목 사이를 걷는 두 사람  
신선한 공기를 음미하며 걷는 승희. 두 발자국 뒤따라 걷는 우연

우연

여기가 갑자기 그렇게 오고 싶었어?

승희

(우연의 팔짱을 끼며)

항상 그대로 있을 곳이잖아. 몇 십 년 후에 찾아와도 똑같은 모습일  
테고.. 이 길을 걸으면서.. 그때 같이 걸었던 길이네 추억도 되고.  
설마 창경궁 경복궁까지 재개발하겠어?

우연

(피식)

몇 십 년 후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어서. 저녁은 뭐 먹을까?  
(신발에 돌이 들어 간 듯 신발 한 쪽을 벗는다)

승희



(짧은 망설임)

나, 회사에서 연수 가래. 벨기에.

우연

어... 얼마나?

승희

2년. 길면 3년.

우연

(승희 시선을 피한 채, 신발을 연거푸 흔들며 털면서)  
갔다 와.

승희

(어이없는)

그게 다야? 뭐가 그렇게 간단해?

우연

복잡하길 원해? 가지 말라면 안 갈 거야? 어차피 갈 거잖아!  
(계단에 주저앉아 아예 신발 깔창까지 꺼내 털어댄다)

승희

(신발을 뺏어들고)

아무리 그래도.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의논 좀 해보자 뭐 그래야하  
는 거 아냐?

우연

(깔창 내던지고)

뭘 의논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지 마 그럴까? 쥐뿔도 없는데?  
아님, 너 갔다 올 때까지 내가 아파트 해 놓을게 그래? 개털인데?

승희

계획은 세워놔야지! 언제까지 그럴건데? 왜 아무것도 안 해? 너 이  
제 이력서도 안 넣잖아!

우연

니가.. 내 마음을 알아?

승희

몰라. 그러니까 제발 애길 해 달라고!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의 팽팽한 시선.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 95. 과거. 장례식장 빈소 / 밤

화면 밝아지면, 큰절을 올리는 우연.

4인방이 다 같이 절을 올리는 제사상에 놓인 - 승희부의 영정

절을 하고 일어서는 우연의 시선에 - 멍하게 낮이 나간 승희

## 96. 과거. 동 주차장 / 밤

아우디 트렁크 앞의 근남 수표 공자, 공자의 골프채들을 만져보며 잡담을 나누는데  
“우와 비싸겠다.”

“니들도 더 늦기 전에 시작들 해! 비즈니스는 골프여!”

수표

그 몸에 무슨 골프냐? 자, 너거 조카님이시다.

(스마트 폰으로 초음파 동영상 보여준다)

근남

아들이냐 딸이냐? 이거 콩알 만한 거 이거 고추 아냐? ...

공자

야, 가만. 근데 12주면 딱 집들이 그 날 아냐? 새끼 너 야동 다 뺏  
기고 허탈감에 그냥..

대화를 이어가는 수표 공자. 근남, 문득 멍하니 생각에 잠긴 우연을 보더니

근남

요새 왜 그래?

우연

뭐가?

근남

털어 봐! 확!

우연

(한숨)

만약에.. 승희를 안 만났으면 나 지금 어땠을까?

근남

대학은 확실히 못 갔겠지. (피식)

우연

아니, 대학 졸업반 때.

그때 안 만났으면, 안 다쳤을 거고. 그럼 1급 따서 취직 잘 했을 테고, 지금처럼 배 나온 아저씨 아줌마 수발들고 러닝머신이나 닦고 있진 않을 거 아냐?

근남

곧 돼. 된다고 새끼야. 내가 보장해.

우연

어떻게든 아무데나 취직 좀 해보려고 발악하는 내 꼬라지가..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체육인이 꿈이었다고 했다가, 새로운 꿈을 꾀다 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내가 아니야. 짹! 짹!

근남

자소서가 원래 다 구라지 진통이 어딴냐?

우연

앞이 안보여!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문제는.. 나중에 힘들 때마다 승희 만난 걸 후회할까봐.. 그게 겁나.

근남

하 이 새끼 진짜..

우연

맞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때가.. 딱 그때부터 전부 꼬여 버린 거야.

(승희)

꼬여버렸다고? 나 때문에?

돌아보면, 우연을 노려보는 승희. 놀란 우연. 근남도 놀라고.

승희

후회? 후회한다고?

우연

그게 아니라. 그럴까봐 겁이 난다는..

승희

그거였구나? 나한테 말 못하던 니 마음이란 게.

(다가오는 우연을 밀어내며)

민경씨 아직 결혼 안했다며! 가봐. 가서 꼬여버린 니 인생 다시 펴  
달라고 하면 되겠네!

좌불안석 근남, 영문을 모르는 수표 공자를 데리고 멀어진다.

우연

민경이랑 헤어진 걸 후회한다고 안했어. 난 그냥..

승희

그래.. 니가 후회하는 건 날 다시 만난거지!

(악 깨무는 어금니. 꼭 쥔 주먹)

내가 그렇게 해 달랬니? 민경씨 헤어진 것도, 다친 것도 다 니가 선택한 거잖아! 근데.. 뭐? 후회?

우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만. 딱 그 시기만 아니었더라면..

내 상황 알잖아? 너무 갑갑하고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승희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니가..

(굵은 눈물을 떨구며)

아빠가.. 꼭 그랬어.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부도난 걸..

엄마를 원망 했어. 엄마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면서... 다 꼬였다고.

(눈물을 닦고 이를 악 깨물며)

우리 헤어지자. 아니면 내가 후회할 것 같거든!

굳어버린 우연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승희, 성큼 성큼 걸어가면서

## 97. 과거. 동 입구 - 복도 / 밤

승희. 홀로 텅 빈 복도를 걸어간다.

힘겹게 벽을 짚는 승희의 손에 끼여진 커플링

CUT TO

빈소로 들어서는 승희, 우두커니 아버지의 영정을 본다.

무표정한 아버지의 얼굴. 승희의 흔들리는 두 눈이 젖어온다.  
꼭 주저앉는 승희,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승희를 보는 사람들의 숙연한 표정들  
빈소로 들어서는 우연,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승희를 바라만 보는데  
헛한 빈소를 채우는 승희의 통곡 들으면서

## 98. 과거. 승희 집 앞 골목 / 밤

또각또각. 걸어오는 승희, 진동하기 시작하는 핸드폰을 꺼내 보면.  
액정에 - 우연. 승희, ‘수신거절’ 꼭 누르고 걸어가다가 멈칫  
보면, 집 앞에 앉아있는 우연.  
망설이다가 돌아서는 승희의 모습에서

## 99. 과거. 놀이터 / 밤

인적 없는 놀이터. 끼익끼익- 흔들리는 그네의 승희.  
귀에 꼽은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손에는 (우연이 주었던) MP3  
사이. 걸어오는 우연, 옆 그네에 앉는다.

우연

그거 아직 플레이 잘 돼?

승희

(MP3 스톱, 이어폰을 빼며)

아빠가 취할 때마다 도망 나가서 이걸 들었어. 엄마가 이제 끝났다고 전화할 때까지. 이걸.. 너 때문에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말없이 고개 숙이는 우연)

(서서히 젖어가는 승희의 두 눈)

나쁜 새끼..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쁜 버릇 같은 거면 노력해서 고칠 수라도 있지! 왜 하필이면..

우연

(승희 앞에 눈높이로 앉으며)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묵묵부답인 승희. 우연, 애써 미소 머금으며

우연

나 취직 될 것 같아. 교수님이 추천서 써주신 중학콘데 다음 주에  
면접 보자고 연락 왔어.

승희

(눈물 닦으며)  
잘됐다. 진짜.. 잘됐다.  
그 애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우연

그럼! 이제 아무 문제없을 거야.

승희

나 연수 가기로 했어. 나한테 좋은 기회잖아.

우연

그래. 다녀와. 잘됐다. 난.. 기다리지 뭐. 벌 받는 셈.. 반성하면서.  
그럼 되지?

승희의 손을 감싸 쥐는 우연, 문득 승희 손가락의 반지가 사라진 것을 보고  
굳은 표정으로 승희를 보면 시선을 피하는 승희.

우연

진짜.. 헤어지잔 거야?  
야!  
(승희의 손을 잡아 제 얼굴을 때려대며)  
그냥 날 때려! 화 풀릴 때까지. 응?  
(손을 빼려는 승희를 와락 껴안으며)  
잠깐 미쳤었다고 얘기했잖아. 실수라고. 말실수.  
제발 좀 잊어주라. 응!

승희

그 애길.. 못 잊는 게 아냐.  
니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못 잊는 거란 말이야!

느슨해지는 포옹.

가슴 먹먹한 표정으로 승희를 보는 우연, 어금니를 깨물면서

우연

넌, 한 번도.. 나쁜 생각, 비겁한 생각, 남 탓, 세상 탓 한적 없냐?  
단 한번도?

승희

니 탓은 안했어. 단 한번도.  
(굳어버린 우연)  
이 노래.. 약효가 다 됐나봐.  
(벤치에 MP3를 놓고 일어선다)  
면접 잘 봐.

경직된 우연을 뒤로 하고 걸어가는 승희. 멀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 100. 과거. 00중학교 / 낮

화면 가득 펼쳐진 푸른 하늘을 점이 되어 날아가는 비행기  
카메라, 천천히 틸다운하면 보이는 어느 중학교 교정

CUT TO

교실. 칠판에 적힌 - ‘체력의 측정과 평가’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판서를 하며 건조한 음성으로 설명을 하는 우연

우연

순발력을 평가하는 방법들에는 제자리 높이뛰기, 제자리 멀리 뛰기,  
50m 100m 달리기 그리고 매디신볼 던지기 ...

판서를 하는 우연의 뒤로 보이는 - 따분한 학생들  
소곤거리고, 핸드폰 보는 놈에, 자는 놈들도 있고  
분필을 툭 던지고 돌아서는 우연

우연

그냥 자습할래? 체육 재미없지? 국영수만 과목이지?

눈치 보는 학생들

남중생2

체육이 아니라요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어요.

여중생1

첫 수업 때도 그렇고, 선생님 항상 화난 사람 같아요.

우연

화난 사람?

“맞아요.” “왕 진지해요.” “대박 심각하세요.” 심하게 동의하는 학생들  
망치로 한 대 맞은 표정의 우연

남중생3

다른 선생님들처럼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주심 안돼요?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첫 키스요!” 소리치는 학생들

우연

내 첫사랑 이야긴 재미없을 텐데.

“괜찮아요~” “그래도 해주세요~” 외치며 책상을 두드리는 학생들  
우연, 이내 표정 밝아지며 피식 웃더니

우연

스케일이 만렙인데. 감당 할 자신 있어?

네~~ 우우! 기대감에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

우연

고딩때 야자 끝나고 학교 앞 떡볶이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알바여  
자애를 일진애들이 괴롭히고 있는거야. 그래서 내가 딱, 야 하지마.  
그랬더니 너 뭐야? 나 애 남자친구다. 그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타다닥 네 놈을 쓰러뜨렸는데, 자식들이 한 스무 명을 데리고 온 거  
야. 그래서 여자애 손을 잡고 열나게 뛰어가서 거기 연탄공장이 있  
었거든. 공장에 딱 숨어있는데, 우와~ 근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왔  
어. 연탄이 녹아가지고 와르르 쓰러지는거야. 그걸 내가 등으로 딱  
막고. 연탄 한 삼백장 밑에 깔렸는데 여자애는 진짜 얼굴에 검정도  
하나 안 묻었거든. (이어지는 허풍) ....

## 101. 과거. 벨기에 기숙사 / 밤

들려오는 캐롤송. 크리스마스 트리의 반짝이는 장식들. 카드들.  
와인, 맥주 등을 마시는 서양 여학생들 사이로  
계단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노트북으로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승희  
보면, 공자의 페이스북 속 - 4인방의 사진들과 댓글들  
사진 속 친구들의 모습과 댓글이 반가운 승희  
방금 추가된 페이지 보면 - 수표 집에서 찍은 사진 속 갓난아기를 안은 수표부부와 근남 공자

승희



어머, 애기 예쁘다! 수표 너 안 닳아서 다행이다.

‘지훈아, 넌 아빠 짬돌이 근성은 닳지 마라!’ - 공자  
‘역시 애기들은 술담배를 안해서 피부가 뽕송뽕송해 ㅎㅎ’ - 근남  
미소 짓는 승희, 와인을 마시는데 땡 소리와 함께 달리는 댓글  
순간 웃음기가 가시는 승희의 시선으로 -  
‘우연아 소개팅 끝나는대로 얼릉 튀어나~~’ - 수표  
썩썩한 미소를 지는 승희,  
‘친구알림차단’ 클릭, 천천히 노트북을 덮는다.

## 102. 과거. 달려가는 버스 안 / 낮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캐롤. 창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우연,  
공자 페이스북을 보면서 댓글을 다는데  
‘내가 소개팅을 하는게 아니고 동료 선생님 주선해준다고! 지금 가는 중. 술 더 사가?’  
사이. 정류장에 멈춰서는 버스  
그리고 우연의 귀를 때리는 소리

(음성)

삐- 환승(회)입니다.. 삐- 환승(회)입니다.. 삐- 환승(회)입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우연의 얼굴에서

## 103. 중학교 운동장 / 낮

화창한 가을 하늘. 교문 옆 화단의 붉게 물든 정원수들  
학생들의 함성소리 들려오고. 허공을 가르는 배구공.  
피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우연  
사이.  
멀리 굴러가는 공을 쫓아 뛰어가는 우연,  
공을 잡고 돌아서다 문득 멀리 교문을 들어서서 여자를 본다.  
승희다!  
굳어버린 우연을 향한 승희의 어색한 미소

## 104. 동 뒤뜰 / 낮

벤치에 앉은 우연과 승희. 손에 캔 음료 하나씩 들고서.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는데

승희의 눈치를 보는 우연

우연

언제 귀국했어?

승희

한 달 정도.  
정규직 됐다면서? 잘됐다.

우연

뭐, 인재를 알아 본거지.  
근데 뭘 얘기 길래 뚫을 들어냐? 뭐.. 시집이라도 가냐?

승희

(떨리는 눈으로 우연을 바라본다)

우연

야~ 진짜 축하한다.

승희

직접 말해주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어차피 공자 통해서 알게 될 텐데. 전화로 하기도 그렇고.

우연

그래, 니 나이면 갈 때 됐지. 아들 딸 썩썩. 요즘 애 많이 낳는 게 애국하는 거야. 알지? ...  
(축하멘트를 연발하다가 순간 말문이 막힌다)  
(표정관리 안 되는)  
한국사람?

승희

응. 벨기에 주재원. 무역회사.

우연

그 사람도.. 3초였어?

승희

그것보단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우연

그럼 조루는 아니구나!

푸하하.. 큰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애써 참는 승희.  
이 모습이 우연은 더 씩씩한데

## 105. 동 교문 앞 - 택시 안 / 낮

교문을 나서는 승희, “택시!” 택시를 세워 탄다.  
출발하는 택시.

CUT TO

뒷좌석의 승희, 생각에 잠겨있는데  
이때 뒷유리를 통해 보이는 - 교문을 뛰어나와 택시 뒤를 쫓아오는 우연  
필사적으로 달려와, 결국 따라잡더니 택시 트렁크를 쿵쿵  
깍. 택시 뒷문을 여는 우연  
놀란 승희의 시선에 - 헉헉 가쁜 숨을 뱉는 우연  
긴장하는 승희

우연

너... 그거 보내라.  
청첩장... 꼭 보내! 알았지?

당황하는 승희의 얼굴에서

## 106. 이자까야 / 밤

빈 소주병들과 안주 접시 사이에 놓인 자두색 봉투  
고개 숙인 우연의 눈치를 살피는 근남 수표 공자

수표

갈 거가?

우연

안 가 새끼야! 화환이나 하나 보내주려고. 제일 비싼 걸로.  
(소주 원샷)  
오랜만에 나타나면 더 못생겨지던가! 똥배라도 키워오던지.. 더 예뻐  
저가지고. 씨.

수표

우리 다 같이 확 뜨자. 낚시 가면 되겠네. 일박이일로.

우연

그래~~ 가자 낚시.

“굿 아이디어!” 근남 맛장구를 치며 잔을 채우는데 슬슬 눈치를 보는 공자

공자

난 가야 돼.

(짜려보는 근남 수표)

과 직속 선배잖아!

CUT TO

우연

(테이블에 고개를 처박은 채)

에레이, 환승희 나쁜 년! 에레이, 환승희 독사 같은 년! ...

엎어진 우연을 보는 친구들의 시선. 수표, 우연의 손에서 술잔을 빼며

수표

(근남에게) 넌 우짤래? 은영이가 시집간다고 연락이 온다?

근남

가지. 한 백 명 데리고 가서 밥만 먹고 와야지. 그년한테 들어간 밥  
값이 얼마데.

수표

공자 니는.. 모태솔로지! 니 그라다가 요정된다?

공자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조만간 인사 시켜줄게.

근남 수표

진짜? 누군데?

즉답을 안하는 공자에게 꼬치꼬치 물어대는 근남 수표

한편, 여전히 테이블에 고개를 묻은 우연 핸드폰을 꺼내드는데

## 107. 승희 방 - 이자까야 (교차) / 밤

웅~~ 울리는 핸드폰. 발신인을 보는 승희, 망설인다.

이내 받아들며

승희

...

우연

보내란다고 진짜 보내니? 그냥 하는 말이잖아! 언제 밥 한번 먹자.  
조만간 한잔 하자! 몰라?

승희

나도.. 후회 많이 했어. 다시 꺼낼 수도 없고.

우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넌 계획적으로 그런 거야. 내가 승희 너 잘  
알거든. (버럭) 확실하게 커버치고 싶었던 거잖아! 앞으로 다신 얼씬  
도 하지 마라! 아냐? 맞잖아?

근남 수표 공자는, 다른 손님들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하고 있고.

승희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그만 끊을게. (똑)  
(긴 한숨을 내쉬다)

CUT TO

승희 집 앞 골목길의 정경. 점점 깊어가는 밤.

## 108. 낚시터 수상 좌대 / 낮

수면에 비친 흰 구름들. 드리워진 낚싯대들.

나란히 앉은 우연 근남 수표. 근남, 굳은 표정의 우연을 힐끗 보더니

근남

비밀번호 아직도 0508 쓰지? 은행 현관문 전부 다!

우연

못 잊어서 그랬냐? 귀찮아서 안 바꾼 거지.

수표

옛날에 현주 사귄 때 만든 이메일, 헤어지고 그거 안 쓰는데. 거래  
처 새끼가 거로 보내가꼬. 다 잊었었는데. 후유증이 며칠을 가는기  
라.

근남

후유증? 장난 하나?

근남, 바지를 걷어 발목을 보여주면 - 레이저로 반쯤 지운 문신 ‘은영♡’  
의외라는 듯 놀라는 우연 수표

근남

이거 새기고.. 두 달 있다가 헤어졌잖아.

(눈물 찢김)

망할년! 레이저로 지질 때마다. 씨발, 지금 지지는 건 그 년 마빡이  
다 최면을 걸면서/

수표

그냥 다른 은영이를 만나! 돈도 아끼고!

솔깃하는 근남. “천재데!” 씩씩한 미소를 지는 우연, 입질을 보고 챔질을 하며

우연

아싸, 걸었다! 월척이다 월척! 역시 낚시 오길 잘했어, 그치?

이어지는 우연의 호들갑. 근남과 수표는 문신 재활용법에 관한 대화를 이어가는데

## 109. 동 / 밤

휘영청 밝은 달. 잔잔한 수면위의 야광찌불들.

바닥을 뒹구는 술병들. 벽에 기대 하늘을 보며 콧노래를 부르는 우연,  
“내게 약속해줘~~ 오늘 이 밤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우연

야! 맥주 더 있냐?

(뺏어버린 근남과 수표를 보고)

새끼들이 파이팅이 없어졌어.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우연, 테이블 위의 빈 캔들을 뒤적이다

아이스박스를 향해 걸어가다가

낚시채비 통을 차면 쏟아지는 채비들.

“에이 씨! ..”

주섬주섬 줍는 우연의 시선에 문득 보이는 채비통에 그려진 (어두워 잘 안 보이는) 무엇

우연, 캡라이트를 켜면. 라이트 빛이 밝히는 - 채비통에 그려진 그림

‘소년이 소녀를 낚시로 낚은 그림’ ‘복도 많지. 날 낚다니 ^^’

우연  
(그림을 만져보는 손. 울컥하는)  
...!!!!

흔들리는 어깨. 주저앉은 우연의 뒷모습에서

## 110. 동 / 아침

새벽 물안개 자욱한 고요한 저수지. 좌대 끝자락에 앉아 먼 산을 보는 우연,  
한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청첩장

우연(Na)  
*타이밍. 결국은 타이밍이다.*

벌떡 일어나는 우연, 핸드폰을 꺼내들면서

CUT TO

우웅~ 진동하는 핸드폰. 곤히 잠든 관리인은 깰 기미가 없는데. 그 위로 들리는 -

CUT TO

우연  
(외침) 아저씨! 배~~ 아저씨! 배~~ 전화 좀 받아요~~

저수지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외침. 난감한 우연, 시계를 보면 - 06: 05

CUT TO - 좌대 방 안

우연  
(방으로 들어서며 근남 수표를 흔들며 깨우며)  
야. 야. 일어나. 일어나. 결혼식 가자.  
빨리! 쫘 일어나라고!

근남  
새끼가 이랬다저랬다.

수표  
혼자 가라 마. 웃도 없는데 뭘.

우연  
양복 한 벌씩!

수표

(벌떡 일어나 벗어놓은 등산화들 들어 보이며)  
구두는?

CUT TO - 좌대

다함께

아저씨~~ 배~~~ 배~~~

시계를 보는 우연, 안되겠다 싶은지 바로 풍덩 뛰어든다.  
놀란 근남 수표를 뒤로하고 물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하는 우연  
물살을 가르며 우연의 진지한 얼굴에서 선행되는 - 클래식 음악

## 111. 신부대기실 안 / 낮

신부 의자에 앉아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승희의 자태. 예쁘다.  
“승희씨, 정말 축하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팀장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중인데

수모님

신부님, 허리 쪽 펴고. 배에 힘! 드레스 구겨지면 사진 똥똥하게 나  
옵니다?

승희

(힘들지만 예쁘게 웃으며)  
음.. 저 허리 쥐 날 것 같아요. 벌써 몇 시간째.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소정

누구 저 대신 부케 받으실 분 없어요? 부케 받고 석 달 넘기면 3년  
동안 못 간다는데 제가 남자가 없어서..

웃음꽃이 번지는 대기실

## 112. 예식장 로비 / 낮

입구에 늘어선 축하화환들. 로비에 가득한 하객들  
하객들을 맞는 신랑과 신랑 부모. 역시 하객들을 맞고 있는 고운 한복의 승희모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공자, 울리는 핸드폰을 받아든다.



공자

어, 밤낚시는 재미..  
(황당)  
뭐? 어디라고?

CUT TO

화환들이 늘어선 곳으로 들어서는 공자, 통화를 하면서

공자

야! 우연아! 도대체 뭘 애긴지 모르겠지만 그냥 끝나고 해. 이제 금  
방 짬짬따단~ 할건데.

순간, 화환 뒤에서 나와 공자의 덜미를 잡아채어 끌어당기는 손  
놀란 공자의 시선에 - 결의에 찬 우연 근남 수표

CUT TO

미식축구 작전전달 대형으로 선 4인방,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들을 주고받더니

공자

오케이, 내가 센터.

수표

라이트.

근남

레프트.

우연

고맙다. 니들만 믿는다.

꼬덕. 눈신호를 교환하고 로비로 나가 걸어가는 4인방이 응시하는 - ‘신부대기실’로 향하는 계단

### 113. 신부 대기실 안 - 앞 (교차) / 낮

하객들과 마무리 인사를 하는 승희의 시선을 피해 들어서는 근남과 수표. 근남은 수모님에게 수  
표는 소정에게 신속하게 다가간다.

근남

저... 신부 어머니가 찾으십니다.  
(네? 의아한 수모님의 팔을 잡아끌며)

올림머리가 반올림만 됐다고. 일단 가시죠. 머리 다 내려오기 전에..

수표

저 부케 받으실 거지예?

사회자가 급하게 좀 보자고 하는데요. 의논할 게 있다고.

네? 엉겁결에 끌려 나가는 소정과 수모님.

“이따가 봐요!” 하객들도 떠나고 나면,

대기실에 홀로 남은 승희. 뭐지? 싫은데

이때 들어서는 굳은 표정의 우연. 그 뒤로 닫히는 문.

승희의 당황스런 얼굴에서

CUT TO

대기실 앞을 지키는 3인방. 신부를 찾아 온 한 지인들을 막고 있는데

공자

아니 지금 신부 드레스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친구

어머, 애 다이어트 실패했나?

근남

옆구리는 김밥도 잘 터지잖아요. 하하하하!!

우하하~ 함께 웃어대는 3인방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CUT TO

의자에 앉은 승희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우연, 어색한 표정으로

우연

드레스 이쁘다!

승희

신부는 안 예쁘고? (사이) 왜 왔어?

우연

꼭 해줄 얘기가 있어서.

CUT TO

“드레스 옆구리 다시 꼬매느라고요!” “좀 있다가 오세요!”

찾아오는 지인들을 막느라 진땀을 빼는 3인방의 시선에 - 씩씩대며 오는 수모님

수모님

이봐요! 어머님 머리 아무 이상 없드만은 왜..

근남

에헤이, 어머님이 아니고. 이모님이요!

(의아한 수모님을 다시 등 떠밀며)

빨리 안 오시냐고 금방 전화도 왔었는데..

수모님이 멀어지는 동시에 등장하는 소정, 수표를 노려보며

소정

지금 장난쳐요? 부르긴 누가 불러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수표, 시선 피하는 근남을 보며)

어? 니들 황우연 친구들? 그치? 아, 구공자 니들 지금 뭐/

공자

저.. 선배 좋아합니다! 1학년 엠티때부터 쪽이요.

(당황하는 소정)

원래 준비한 프로포즈는 따로 있는데 우연이 새끼 때문에.. 대학때  
빠빠로 데이에 사물함에 빠빠로 저였어요. 생일마다 백합 꽃다발도..

소정

야.. 넌.. 어휴.. 그게 너였다고?

(손 부채질해댄다)

이를 지켜보는 근남 수표, “이건 또 뭔 상황이고?”

CUT TO

쭈뼛쭈뼛 대는 우연을 지켜보는 승희, 툭 던지듯

승희

설마 나 보쌈 하러 왔냐? 나 이러고 뛰어야 돼?

우연

그럴까 했었는데.. 너 하이힐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다.

피식 웃는 승희. 우연도 웃고.

보조 의자를 끌어다 앉는 우연, 긴장이 풀린 듯

우연

넌 만난 거 후회했다는 말. 이젠.. 주워 담을 수 없게 됐지만.

그거 아니라고. 사실은 그 반대라고. 그 말 해주러 왔어.

승희

....

우연

나 요즘 행복해. 애들 가르치는 거 너무 즐거워. 다 니 덕이야.  
니가 있어줘서 꿈도 생겼었고, 대학도 갔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교사로 살게 됐고.. 대책 없이 살 뻔 한 놈.. 니가 사람 만들어준 거  
라고. 환승희, 정말 고맙다!

승희, 아련한 얼굴로 우연을 바라본다. 멧쩍은 미소를 머금은 우연

우연

잘 살아라. 많이 많이 행복하고.  
(머쓱한 미소 지으며 일어서려는데)

승희

사실은 나도.. 그날 학교 갔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의아한 우연. 힘겹게 미소 짓는 승희가 떠올려보는 순간들은

/떨어지는 합판들을 막아주는 우연 “괜찮아.. 안 다쳤어?” 묻고는 정신을 잃는 우연

/“니가 처음 꿇던 꿈이잖아.” 우연이 건네는 패션디자이너 채용 안내서를 받는 승희

/결승전. “정신 좀 차려, 이 등신아!” 외치는 우연을 바라보는 승희

/고등학교. 방송실을 점거하고 우연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며 활짝 웃는 승희

/고등학교 복도. 지치고 힘든 승희 등에 덕지덕지 붙은 종이들을 모두가 모른 척할 때 다가와 떼어주는 우연

승희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쫓아야  
할 꿈이 뭔지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릴 때 항상 니가 있어줬거든.

우연

...!!!

떨리는 승희의 두 눈. 이어서 떠올리는 승희 혼자만의 기억들은

/고등학교. 택기에게 맞으며 꼭 참는 우연을 보는 승희. 번기칸 밑으로 끄끙대며 택기의 바지를 벗겨버리는데

/강릉 터미널 공중전화. 전화를 끊고 승희가 읊조리는 “고마웠어.”

/미식축구 결승전. 얻어맞아 상처투성이 얼굴로 걸어가는 우연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승희

/훈련소 앞 식당. 술에 취해 잠이 든 우연을 보고 미소 지며 승희가 그리는 그림은 - 술에 취한 소년을 옆고 가는 소녀

/놀이터. 우연을 뒤로 하고 걸어가는 승희의 두 눈에 맺힌 눈물

승희

황우연! 정말 고마웠어. 많이 많이.

우연

...!!

CUT TO

“이제 곧 예식을 거행 할 예정이오니 내빈 여러분께서는...”

들려오는 사회자의 멘트. 안절부절 못하는 근남 수표. 공자는 저쪽에서 소정과 대화중이고.

이때 로비 쪽에서 신부대기실을 향해 걸어오는 신랑을 보는 근남 수표

수표

씨바 좇됐다!

CUT TO

미소로 서로를 보는 우연과 승희

우연,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면. 승희도 손을 내민다. 하지만 너무 넓게 펼쳐진 웨딩드레스.

드레스를 밟을 수도 없는 우연, 최대한 손을 뻗어보지만 아직도 부족한 10여 센치.

이에 승희가 일어서서 손을 뻗으면, 마침내 서로를 잡는 두 손.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의 시선에 묻어나는 만감

우연

너..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연락도 하지 말고.

승희

(푸웃! 꼬덕꼬덕) ...!

CUT TO

사색이 된 근남 수표의 시선에 - 거의 코앞에 다가온 신랑

근남

어찌지? 고? 스톱?

수표

고! 끝까지 가는 기라!

점점 다가오는 신랑. 결의에 찬 근남 수표  
마침내 신랑이 다다르면, 약속이나 한 듯 슬쩍 비켜서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신랑,  
대기실 문을 열려는 순간. 문을 열고 나오는 우연  
그렇게 스치듯 엇갈리는 두 남자의 어깨

(신랑)

승희씨, 준비 다 됐어요?

우연의 씩씩한 얼굴 뒤로 보이는 - 승희에게 다가가는 신랑의 뒷모습에서

화이트 아웃

## 114. 예식홀 / 낮

화이트 인. 음악소리 하객들의 박수소리 들려오며. 화동을 앞세우고 입장을 하는 승희.  
신부를 바라보는 하객들. 눈물을 훔치는 승희모.  
박수를 치는 근남 수표 공자 소정. 소정, 왠지 풀이 죽은 듯한 공자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면 공  
자의 얼굴엔 화색이 돌고.  
미소 띤 얼굴로 걸어가는 승희를 향한 우연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BGM,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몰랐었어 니가 그렇게 예쁜지 웨딩드레스~’  
‘하얀 니 손엔 서글픈 부케 수줍은 듯한 네 미소~’  
사이  
멀어지는 승희를 물끄러미 보는 우연, 돌아선다.  
문을 열고 로비로 나가려던 우연, 다시 한 번 신부를 보면서

우연(Na)

*내가 오기 싫었던 진짜 이유는 웨딩드레스 속의 승희가 너무 예뻐  
것 같아서였다. 저 모습을 잊으려면 또 얼마나 걸릴까? 씨발!*

로비로 나가는 우연. 닫히는 문. 박수소리 음악소리 잦아들면서

## 115. 예식장 로비 / 낮

예식이 끝난 로비의 상황.

축하화환들을 둘러보는 정장 차림의 승희와 승희신랑이 멈춰 선다.

### 승희 신랑

이건 누가 보낸 거지? 용석인가? 동수? (이어지는 추측) ...

승희의 시선으로 - 화환의 축하문구

‘에레이~ 복도 많은 신랑’ ‘11시는 잊어다오!’

푸웃! 살짝 꼬리가 올라가는 승희의 입에서

암전

떠오르는 자막

“이 이야기는 실화 80% + 허구 20%다.”

“단..”

“그녀의 기억이 나와 같다면.”

-END-